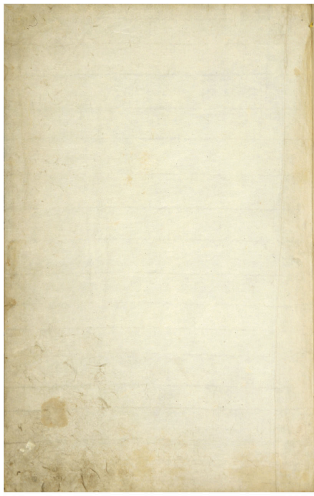


00
21
C.0





第
090
號

國立中央圖書館
編4.6.20
古 G600

20

古
21
80

自從佛와聞如是法고見諸貴고

受記作佛디而我等은不預斯事야

甚有感傷디失於如來고無量知見라

이다 ○ ○ 法법을 듣고 諸諸 佛佛 見見

薩薩 說說 是是 記記 云云 我我 當當 獨獨 處處 山山 林林

如如 來來 無無 量量 知知 見見 見見 見見 見見

다 이 호 다 호 ○ 世尊 하 我常獨處山林

樹下야 若坐若行애 每作是念디 我等

도 同入法性늘 이 어 云何如來 以 小乘

法로而見濟度하다
是는我等答

非世尊也시다
○世尊
○世尊

모아래하오
○世尊

의상이념을화이셔
○世尊

로法법性성에들어늘
○世尊

라小乘승法법범으로濟제度도
○世尊

所以者何하다
若我等이待說所因하다

成就阿耨多羅三藐三菩提者댄런
必必

以大乘로而得度脫늘이
然我等이不
辭方便隨宜所說와
初聞佛法고

遇便信受

와호△

思惟取證

다호이

○

이엇게

기호다려가우리
因인호흐고들니
극삼

막기삼삼
菩보提
提터로일우
리련댄반

득호리어늘그
러나우리
方방便변

의호로맛당을
조차나우리
샤물아니

나호와공
信신受슈호스
와스랑호

취호이중을
取○世尊하
我從昔來에

終日竟夜

每自剋責

而
今에從

佛와△

斷諸

聞所未聞
未曾有法

고호△

斷諸

疑悔

身意泰然

快得安隱

今日

아에 乃知真是佛子라從佛口와△生며

從法야化生야得佛法分다와이○世존

하내네보터오매나리저름오바미
못드록의상내천추黃척호단니이

재부터쪽조와든좁디몬호얏던아
리잇디아니호와법을듣좁고여라

疑의悔회를그처몸과쁜과便편安
안호야천히安안隱은올得득호야

오늘와眞진實실스이佛불子조
라부텃이불쪽조와나머法법을조

차化화生싱호야부텃法법
分분을得득호돌알와이다○爾時

舍利弗이欲重宣此義야而說偈言△
○다사희송사刹利야偈게를이손오다

去來三

我聞是法音고하 得所未曾有하 於心懷

大歡喜야하 疑網을 皆已除다하 昔來에

蒙佛教와하 不失於大乘니호 佛音이 甚

希有사하 能除衆生惱나하 我나 已得滿

蓋나하 聞亦除憂惱다하 ○ 내 이 법 법 음

未미 曾증 有유 疑의 心심 斯스 矣야 矣야 矣야

大다 乘차 小소 乘승 希희 有유

阿아 尼니 佛불 能능 希희 有유

得득 是는 法법 音음 未미 曾증 有유 於하 心심 懷회

다와 이 ○我處於山谷나或在林樹下

나거若坐若經行애常思惟是事야嗚呼

深디自責디云何而自欺다○내○잇○거

나시혹수프나모아래잇거나안거

야땀오呼호호야기피내責척호

我等도亦佛子라同入無漏法디不能

於未來예演說無上道며金色三十二

와十力諸解脫와同共一法中이어而

不得此事며八十種妙好와十八不共

法과如是等功徳을而我皆已失호호라

我獨經行時에見佛이在大衆샤호名聞

이滿十方샤호廣饒益衆生고호습自惟失

此利호我為自欺誑다호○도우샤리

佛불불子조조로라호간지호未미來來래에

無무무上上상상道도를퍼니르와호호加

金금금色色색색三삼십二이와호호一

法법법과諸世解하脫탈왜호간지호得득로

十십십八팔不블共공法法妙妙호호와

功공공徳徳을내디호마일호라호

내호오하두루든닐세부테대호

중애고득샤샤일흠들이샤미십방
에고득샤샤니비衆중생싱온饒요

益의샤를일호니내내모소고미
利나를일호니내내모소고미

다외이다다
○我常於日夜每思惟

是事欲以問世尊為失為不失
是事欲以問世尊為失為不失

我常見世尊稱讚諸菩薩
我常見世尊稱讚諸菩薩

以是於日夜籌量如此事
以是於日夜籌量如此事

내상년났바미미상외이를스랑
여세세尊존파문조오파알후미

인내가일녀아니호미드원카코져
며내가일녀아니호미드원카코져

살을일일야라에기이리곤시이든보혜아
로살을일일야라에기이리곤시이든보혜아

다 ○ 今聞佛音聲오스니隨宜而說法

이 無漏難思議라令衆至道場스어다

이 제 부 덧 흥 음 聲 성 들 지 오 니 맛 당
을 조 태 사 法 법 니 르 가 미 漏 루 업 스

사 사 思 스 議 의 호 미 어 려 우 산 디 라 한
차 르 므 로 道 도 場 당 에 니 를 에 호 시

다 ○ 我本著邪見야호為諸梵志師

세 世尊 이 知我心사호拔邪사호說涅槃

시 호 야 我 悉 除 邪 見 고 호 於 空 法 에 得 證 야 호

爾時心自謂디호得至於滅度타호而乎

라 에 乃 自 覺 非 是 實 滅 度 다 호 이 ○ 내 본 來 리 稱

을의사 見스견스이에 著와 닷 하야 니 모 든 梵 尊 범 존 지

내 만스 물 날 어 르 시 사 늘 사 내 사 다 애 사 허 사 涅

을 그 오 공 法 내 너 교 증 을 得 득 하

아 그 니 를 와 라 타 아 니 오 늘 와 아 로

진 實 실 니 를 와 라 타 아 니 오 늘 와 아 로

天 人 夜 又 衆 과 龍 神 等 이 恭 敬 사 하 야 是

時 에 乃 可 謂 永 盡 滅 야 無 餘 이 다 로 소 ○

二 다 가 상 의 부 자 天 원 재 삼 십

차 衆 의 과 龍 의 神 신 들 히 恭 공 敬 경

야나문것업다다니 ○佛於大衆中

說我嘗作佛니○聞如是法音고○疑

悔를悉已除다○부○태大衆中

법음은 들리니 의심회를 다

○初聞佛所說고○슴心中

大驚疑將非魔作佛야○惱亂我心

耶다佛以種種緣과譬喻로巧言說

○시其心의安如海야○我聞고○슴疑

斷다○처○슴○터○니○장○물○들○어

心 심 호 보 차 디 魔 마 류 부 터 드 아 외 난 가 내
 스 물 보 차 어 스 류 미 장 차 아 난 가
 다 니 부 테 種 종 種 종 緣 연 과 辟 피 喻
 유 와 로 공 공 巧 巧 緣 연 과 辟 피 喻
 들 미 便 변 안 안 호 호 바 바 곧 곧 하 하 그 그 마 마
 다 〇 佛 說 過 去 世 無 量 滅 度 佛 이
 安 住 方 便 中 亦 皆 說 是 法 亦 以 諸
 在 未 來 佛 其 數 無 有 量 亦 以 諸
 方 便 演 說 如 是 法 如 今 者 世
 尊 從 生 及 出 家 得 道 轉 法 輪
 亦 以 方 便 說 世 尊 說 實 道

위미 波旬은 無此事이다로 소 ○ 샤부 다테 니과

불去 이 커 세 방 세 엇 無 中 量 에 량 減 변 멸 안 히 佛

두 示 現 다 이 법 와 未 미 來 리 示 니 부

방 便 번 수 로 이 그 큰 法 스 법 을 쏘 펴 니 方

삼 시 브 리 트 라 샤 示 出 家 가 는 세 尊 샤 尊 샤 道 이 나

得 득 便 번 法 輪 른 을 움 기 샤 다테 世

方 방 尊 존 이 實 실 은 이 도 노 라 히 시 다테 世

以是 我 定 知 非 是 魔 作 佛 이 어 我

墮疑網故 謂 是 魔 所 爲 다 호 이 閻 佛 業

무^터인^신의^의恭^공공^공敬^경호^호미^미드^드외^외야^야無^無

上^상양^양法^법법^법輪^륜륜^륜은^은을^을을^을을^을겨^겨諸^諸저^저썸^썸보^보

薩^薩살^살은^은교^교교^교화^화화^화○爾^爾時^時佛^佛告^告舍^舍利^利

弗^弗디^디샤^샤呑^呑呑^呑今^今에^에於^於天^天人^人沙^沙門^門婆^婆羅^羅門^門

等^等大^大衆^衆中^中에^에說^說說^說니^니노^노我^我我^我昔^昔에^에曾^曾於^於二^二

萬^萬億^億佛^佛所^所에^에爲^爲無^無上^上道^道故^故로^로常^常教^教化^化汝^汝

汝^汝亦^亦長^長夜^夜에^에隨^隨我^我受^受學^學니^니我^我以^以

方^方便^便로^로引^引道^道汝^汝故^故로^로生^生我^我法^法中^中라^라하^하니^니○

그^그백^백부^부태^태舍^舍샤^샤利^利리^리弗^弗불^불드^드려^려니^니르^르

바^바羅^羅라^라門^門몬^몬等^等등^등大^大대^대衆^衆중^중中^中중^중에^에

佛불로상게無너를上道도爲의
전大로상네너를敎교化화커든네

또근내방나를조차비호受受
더니내방나를변으로니를引인

도흔천대나내라○舍利弗아我
법중등에나내라○舍利弗아我

昔에敎汝志願佛道늘야汝一今에悉

忘고而便自謂已得滅度호라我一今

에還欲令汝로憶念本願所行道故로

爲諸聲聞야說是大乘經니호노名이妙

法蓮華니敎菩薩法며佛所護念라이○

도舍사利리弗불아내려너를佛불도
도를스리대願원호라려너를佛불도

제다 닛고 곧 네 너 교 디 하 마 減 멸 度
도 를 득 득 호 라 흘 시 내 이 제 도 로 날

로 본 來 라 스 願 원 에 行 行 諸 聲
도 를 憶 念 념 케 願 원 에 行 行 諸 聲

성 聞 문 爲 위 하 야 마 대 乘 승 經 경
을 니 르 노 나 일 후 마 妙 묘 法 法 蓮 蓮 蓮

華 화 이 며 부 터 護 호 념 념 하 논 배 라
법 이 며 부 터 護 호 념 념 하 논 배 라

舍利弗 아 汝 | 於 未 來 世 에 過 無 量 無

邊 不 可 思 議 劫 아 供 養 若 干 千 萬 億 佛

야 奉 持 正 法 아 具 足 善 薩 所 行 之 道 아

當 得 作 佛 아 號 曰 華 光 如 來 應 供 正 遍

知 明 行 足 善 逝 世 間 解 無 上 士 調 御 丈

夫天人師佛世尊

니이리 ○ 불삼야네未리弗

來可世思無量劫을디내야若

養干간야천萬法億佛불을供公

기부태드외야일후물닐기오디華化

知다明명行히應足족善선逝世世

問간解히無무上상士士佛佛世世

尊니이 ○ 國名은 離垢오其土 一 平

正며淸淨嚴飾

며安隱豐樂며天人이

熾盛며琉璃爲地

고有八交道든黃金

爲繩야호以界其側며호其傍에各有七寶

行樹디호常有華果든케華光如聚ㅣ亦以

三乘로으教化衆生라호리舍利弗아彼佛

出時ㅣ雖非惡世나以本願故로說三

乘法라호리其劫名은大寶莊嚴니호리何

故로名曰大寶莊嚴고其國中에以善

薩로爲大寶故라○垢나穢라穢일穢후穢은穢離

平병正정便변安안豐풍樂락斯시妙미

天천人인心신盛성嚴엄琉璃유리瑠리璃리斯시妙미

天천人인心신盛성嚴엄琉璃유리瑠리璃리斯시妙미

寶華承足호리此諸菩薩非初發

意라皆久植德本호於無量百千萬億

佛所에淨修梵行호恒為諸佛之所稱

歎호常脩佛慧호具大神通호善知一

切諸法之門호質直無偽호志念호堅

固호如是菩薩호充滿其國호리舍利

弗아華光佛호壽호十二小劫호리除

為天子호未作佛時호其國人民호壽

八小劫호리○호諸계善보薩살이
無무量량無무邊변

몬	劫	光	구	實	일	慧	라	行	千	오	菩	보	스	러	不
드	劫	광	든	실	切	혜	行	行	천	래	보	보	니	러	불
외	외	佛	이	히	체	를	讚	讚	萬	德	보	비	니	러	可
야	리	불	근	고	諸	닷	간	간	만	덕	살	엇	라	하	의
어	니	八	훈	다	제	가	탄	가	億	미	이	고	하	다	能
신	王	목	菩	커	法	큰	호	상	억	틀	차	바	하	다	思
저	왕	수	보	츠	법	神	마	네	佛	심	삼	를	하	니	能
근	子	은	薩	롬	門	신	드	諸	불	거	쁘	바	나	면	議
더	조	十	살	업	문	通	외	제	八	無	내	드	고	能	의
니	드	십	이	서	을	통	며	佛	게	무	니	리	저	능	라
라	와	二	그	븐	아	이	상	불	조	량	야	니	호	히	算
그	야	화	나	느	대	기	네	八	히	량	나	이	자	알	數
나	부	小	라	님	알	자	佛	일	찰	百	라	諸	기	리	니
랏	터	少	해	이	며	一	불	크	범	백	다	제	면	부	부

安안행항多다院院三삼藐藐阿아伽伽度度

阿아羅羅訶訶三삼藐藐阿아伽伽度度

邦^아是是華光佛滅度之後^에正法住世

三三十二小劫^오像法住世^도亦三十

二二劫^라이리 ○ 舍^화光^광佛^불滅^멸度^도

후後후에正正法法법世世世間間간애이

像像三삼십二二劫劫劫애이삼삼도도

爾爾時世尊^이欲重宣此義^사而說偈言

다^사舍利弗^이來世^에成佛普智尊^야

號名曰華光_라當度無量衆_라供養

無數佛_라具足菩薩行_과十力等功德

證於無上道_라過無量劫已_라劫

名_은大寶嚴_오世界名_은離垢_니清

淨無瑕穢_라以琉璃_로爲地_고金繩_로

界_其道_七寶雜色樹_에常有華果實

彼國諸菩薩_이志念_이常堅固_라

神通波羅蜜_이皆已悉具足_라於無數

劫所_에善修善_修謹道_고如是等大士

華光佛所化라 리佛爲王子時에棄國

捨世榮고於最末後身에出家成佛道

라하리 ○그世尊이 나리다

샤刹리블이오느뒤에부터普莊智

다尊존이드외야일후를닐오디華

을화光廣이라반드기無무量량衆중

十供공養양호야菩보薩살行행과

무上상道도호를證중호리라無무量

보嚴엄이오세界界사일후문離

더러우마업서琉璃로사야허름

寶寶雜 잡 색 색 식 식 樹 樹 수 수 에 에 상 상 네 네 곳 곳 과 과 實 實 실 실 이 이 사 사 리 리 나 나 더 더 나 나 랫 랫 諸 諸 祿 祿 果 果

通 通 薩 薩 살 살 이 이 불 불 念 念 념 념 이 이 상 상 네 네 구 구 더 더 神 神 신 신

자 無 無 무 무 數 數 수 수 佛 佛 불 불 八 八 개 개 善 善 보 보 薩 薩 살 살 道 道

十 華 華 화 화 光 光 광 광 佛 佛 불 불 八 八 개 개 化 化 화 화 호 호 나 나 리 리 妙 妙

려 後 後 후 후 身 身 신 신 간 간 榮 榮 영 영 華 華 화 화 化 化 화 화 리 리 妙 妙 불 불

道 道 도 도 를 를 알 알 ○ 華 華 光 光 佛 佛 住 住 世 世 十 十 壽 壽 十 十

二 小 劫 오 이 其 其 國 國 人 人 民 民 衆 衆 의 의 壽 壽 命 命 은 은 八 八 小 小

劫 劫 이 이 리 리 佛 佛 滅 滅 度 度 之 之 後 後 에 에 正 正 法 法 住 住 於 於 世 世

三 十 二 二 小 小 劫 劫 이 이 리 리 廣 廣 度 度 諸 諸 衆 衆 生 生 가 가 다 다

法藏盡已다像法도三十二리舍利度

流布나天人이普供養나華光佛所

爲나其事나皆如是나其兩足聖尊이

最勝無倫匹나彼即是汝身나宜應自

欣慶라이니 ○간華화光光佛佛불이世世間間

二二의의小小劫劫劫劫命命은은八八발발小小인인신신民民

법법이이라라부부터터滅滅말말度度도도후후후후에에

삼삼십십삼삼의의小小劫劫劫劫이이리리나나모모도도

正正법법도도삼삼십십삼삼의의二二의의다다거거든든像像상상

法法법법도도삼삼십십삼삼의의二二의의리리나나舍舍사사利利

나리녀비비流류布보호야天천人신이
나비供공養양호리나華화光광常

불은호요미그이리타이근호야그
兩兩足족족聖성尊尊손이곳노파박업

스니데곧이네봄이니제갓
귀慶경賀하호마을호니라화유

爾時四部衆比丘尼優婆塞優婆塞

天天龍夜叉乾闥婆阿修羅迦樓羅緊

那羅摩睺羅伽等大衆見舍利弗

於佛前受阿耨多羅三藐三菩提

心大歡喜踴躍無量○그대四

衆승호비比丘쿠비比丘쿠비尼니優우婆바夷이와天천
娑사婆파塞세今금優우婆바夷이와天천

동야야차乾健闍婆바아備
 슈羅라迦가樓루羅라緊근那나羅
 라摩마睽후羅라伽가等등大대衆
 종의승상천의佛불의부텃알피阿
 아轉속多다羅라삼藐막삼菩
 보提提記의受命호삼오물보고
 소매그지장깃거호야소○各各脫身所
 著上衣야以供養佛호며釋提桓因과
 梵天王等의與無數天子로와亦以天妙
 衣와天曼陀羅華摩訶曼陀羅華等로
 供養以佛호니所散天衣住虛空中
 而自廻轉호諸天伎樂百千萬種이

이 때를 호스 오다 부테네 법바라
내에 처삼 법법輪륜을 지고 오

○爾時諸
輪을 업스니 큰 법輪
○爾時諸

天子 欲重宣此義 而說偈言
○

○ 그 때에 諸天天子 偈言을 이르시되
다 사퍼려 하야 偈言을 이르시되

昔於波羅奈 轉四諦法輪 分別說

諸法五衆之生滅 今復轉最妙無

上大法輪 是法 甚深奧 少有

能信者 是法 甚深奧 少有

을 옴기 사 諸法 五衆 生
심 滅 別 을 公 히 야 나 르 기 고 오 늘 스

只微妙묘묘묘하얏나니이法법輪輪
을轉轉轉轉하얏나니이法법이甚심히

기리能능히信하얏다○我等이從音
에어리력도소하얏다○我等이從音

來에數聞世尊說○未嘗聞如是深

妙之上法다니어갓世尊이說是法니어시

我等이皆隨喜하얏다大智舍利弗이

今得受尊記을시我等도亦如是야어必

當得作佛야어於一切世間에最尊無有

上上하얏다○吾人내브타오매世尊
소하얏다○吾人내브타오매世尊

이곧하얏다深深妙묘하얏다上上法法을아
리든하얏다深深妙묘하얏다上上法法을아

이 법을 다 닦고 대승의 수리를 받는다

佛불이 제홍손의 큰 공덕으로 반

기부하여 우리도 얻고 공덕으로 일

아리소 ○佛道 一 叵思議 方便院

宜說 我所有福業今世若過世

及見佛功德 盡廻向佛道

의로 갖당을 조차니라 方便

노福業 업이 짓누와 다 건히와

불도애 회향 ○爾時舍利弗

白佛言하오디世尊하我는今에無復疑

悔야親於佛前에得受阿耨多羅三藐

三菩提記니와○그佛의舍利弗

디世尊존하사는이제의疑의

提多다羅라三삼藐藐阿아耨耨

是諸千二百心自在者一昔住學地는

佛의常教化사言디我法이能離生

老病死야究竟涅槃야是學無學

人도亦各自已離我見과及有無見等

고謂得涅槃호라而今於世尊前에聞

所未聞고皆隨疑惑다○이千二

이百백인삼自부제상네교화

는셔해잇거늘부제상네교화

상老로病병死死내法법여의能능히生

경淫별禁반이라호야사삼각이無무

學호개비호는이카롬도사삼각이無무

제我이見견과소유無무見견호

라터니오느세尊尊존人알피몬든
좁더늘듣좁고다疑의惑혹애해려
이다어○善哉世尊하願爲四衆사說

其因緣사令離疑悔소○세世尊尊

로	디	히	소	無	落	得	리	그	디	三	이	피
미	그	어	하	量	애	유	니	보	아	삼	다	아
그	나	사	하	多	有	로	소	나	니	삼	아	아
지	히	나	하	有	大	아	群	솔	터	보	아	와
업	表	리	하	田	長	로	과	살	녀	보	아	말
스	의	弗	하	宅	者	로	○	舍	이	提	아	로
며	邁	볼	하	及	其	○	舍	利	여	데	로	方
田	매	아	하	諸	年	舍	利	弗	러	를	多	方
견	코	나	하	僮	衰	○	弗	불	가	爲	다	便
宅	천	라	하	僕	邁	舍	아	위	짓	위	라	三
되	량	하	하	尼	고	○	이	호	날	하	라	說
과	가	어	하	○	財	舍	제	전	오	니	三	說
소	스	나	하	○	富	○	반	치	미	니	說	法
종	며	이	하	○	○	○	치	라	다	라	說	法
		을	하	○			라				說	法
		○									說	法

돈 혼 해 ○其家 廣大 唯有一門

고 多諸人衆 야 一百二百乃至五百人

이 止住其中 더 ○ 오그 직흔 비문고 이

고 싸 루 미 만 야 일 백 백 이

더에 잇 ○堂閣 이 朽故 며 墻壁 이 墮落

며 柱根 이 腐敗 며 梁棟 이 傾危 늘어 周市

候時 에 欵然火起 야 焚燒 舍宅 늘거 ○堂

어 디 며 이 서 거 늘 기 며 담 과 비 롬 과

라 리 나 기 라 솔 어 늘 사宅 닷 올 솔 어 늘 브

長者諸子 若二十或至三十 在

此宅中 다호더 ○ 長 長者 자 者 의 見 아 是 돌 大 돌 火 히

火 집 從 안 四 해 面 잇 起 터 即 니 大 리 驚 이 怖 ○ 長者 見 是 大

火 火 從 火 四 火 面 火 起 火 即 火 大 火 驚 火 怖 火 ○ 火 者 火 長 火 者 火 火

而作是念 나호 我 나호 雖能於此 나호 所燒之門 나호

安隱得出 나호 而諸子等 나호 於火宅內 나호

樂著嬉戲 나호 不覺不知 나호 不驚而不怖 나호

火來逼身 나호 苦痛 나호 切已 나호 心不厭 나호

火來逼身 나호 苦痛 나호 切已 나호 心不厭 나호

惠하無求하出意하

다로 ○ 바이능을호디내

문은문문에집안해셔노르슬슬겨

着약하야覺각디몬하며두리디아몬

하야브라와모매다와다설은알포

름터아니하야도고져 ○舍利弗아

是長者一作是思惟我一身手有

力當以衣被나若以几案로從舍

出之타復更思惟是舍唯有一

門而復狹小 ○ 舍利弗나長者자弗나불나아

소량온호디내몸괴손과하미잇노
니반복기衣의械극의어나九奎案

안으로지불從종호야내요려타가
또다시소량호디이지비오직호문

문이잇고나○諸子一幼稚야未有
좁고겨그나

所識야戀著戲處시호或當墮落야爲火

所燒하나我當爲說怖畏之事다호此舍

已燒하나○宜時疾出하無令爲火之

所燒害라디作是念已고하如所思惟야具

告諸子디호汝等어速出하나○諸子

머아로미잇다야니호야노릿호는
씨호스량호야著당호사시호반

니리	○	달아	말에	바비	야알	알외	야엇	도비	諸녀	제겨	子이	조돈	돈말	로
受	야	不	驚	不	畏	了	無	出	心	亦	復	不		
知	何	者	是	火	何	者	爲	舍	云	何				
爲	失	但	東	西	走	戲	視	父	而	已				
而	諸	子	等	樂	著	嬉	戲	不	肯	信				
父	○	父	雖	憐	愍	善	言	誘	喻					

노르스름즐겨 붙디야 하야
물즐기디아니 하야 놀라디아니
며저티아니 하야 값간도 날디
입스며 쏘아니 하야 브리며 어
며어디 윈돌아디 몬코 오직 동
서로 드라 노릿 하야 비 볼스
니러 ○爾時長者 卽作是念 此舍

已爲大火의 所燒 니 我及諸子 若

不時出 면 必爲所焚 니 我今當設方

便 令諸子等 로 得免斯害 라 父

知諸子의 先心 에 各有所好 야 種種

珍玩奇異之物 을 情必樂著 하야 而告

진玩한엇긔
기슬겨긔
긔긔긔
긔긔긔
긔긔긔
긔긔긔
긔긔긔
긔긔긔
긔긔긔
긔긔긔

有유히의야
유히의야
유히의야
유히의야
유히의야
유히의야
유히의야
유히의야
유히의야
유히의야

다카름가
다카름가
다카름가
다카름가
다카름가
다카름가
다카름가
다카름가
다카름가
다카름가

種宗엿羊양
種宗엿羊양
種宗엿羊양
種宗엿羊양
種宗엿羊양
種宗엿羊양
種宗엿羊양
種宗엿羊양
種宗엿羊양
種宗엿羊양

거노릿와야
거노릿와야
거노릿와야
거노릿와야
거노릿와야
거노릿와야
거노릿와야
거노릿와야
거노릿와야
거노릿와야

다반라기너
다반라기너
다반라기너
다반라기너
다반라기너
다반라기너
다반라기너
다반라기너
다반라기너
다반라기너

所說珍玩之物
適其願故
心各勇

銳互相推排
競共馳走
爭出火

宅라하니
○그베諸
宅라하니
○그베諸
宅라하니
○그베諸
宅라하니
○그베諸
宅라하니
○그베諸
宅라하니
○그베諸

去聲 至二
二
二

에 마즈 돌드름 나시르 매 각
勇 용 맹 왕 히 논 나서 르 추 배 비
야 드 투 와 토 다 나 라 화
宅 직 애 드 토 와 나 라

是時長者見諸子等安隱得出

皆於四衢道中露地而坐無復障

礙고 돌其心이泰然야歡喜하踊躍하 더

○ 이 제 장 당 자 나 파 체 거 릿 깎 가 온 便변安안安안히 나 파 체 거 릿 깎 가 온

보 디 고 그 미 마 안 하 야 깃 스 거
고 디 안 자 나 파 체 거 릿 깎 가 온

○ 이時諸子等各白父言

先所許玩好之具羊車鹿車牛車

敷婉筵고安置冊枕고駕以白牛고膚

色이充潔여形體一姝好고有大筋力

行步一平正고其疾이如風如又多

僕從이而侍衛之니○그보비로위습고한

欄란補순두르고四스面면에방을
돌오또그우희德현蓋개퍼고또貴

귀훈奇기異이혼雜잡보비로속속
기작머고보박노호로섯워고여러

가짓빗난璣영珞락드리우고빛난
dot글겨퍼철오블근벼개노고한쇼

매우니습비치充충實실코조호며
얼구리코음여큰하미사마거르

미평정호며그설로미보름
큰거늘또한중이侍衛와하니

所以者何 오 是大長者 一 財富 無量

時種種諸藏 에 悉皆充溢 시 而作是念

我財物 이 無極 니 不應以下劣小車

與諸子等 다 以 로 ○ 엇 德 어 立 이 長

스 海 로 故 미 獨 고 止 지 業 서 種 種 種 種 藏 장

○ 나 內 천 量 엇 거 시 大 은 業 스 尼 사

○ 주 今 이 幼童 이 皆是吾子

來愛無偏黨 니 我有如是七寶大車 호

其數 無量 니 應當等心 로 各各與之

위디不宜差別다 이 로 ○ 내이제득이리아라히다량이

호찰미實보운黨大대黨아거업를스두내그數수

미로그各저업各스각니반다위킬히가짓미을

도터다몬 ○ 所以者何 오 以我此物 로 周

給一國도 하야 猶尚不價 온 何况諸子 시

년 ○ 夫 주테어어 노 내이려업다아니콘앗

子테하몬 시며諸 제 ○ 是時諸子 各乘

大車야得未曾有야非本所望라이러 ○

기이 蚩諸 제子 하 各各各大대車
타 夫 미曹 증有 우를得득하야本

○舍利弗於汝意

云何是長者一等與諸子珍寶大車

寧有虛妄가不아 ○舍네非브利리弗블也야

이長대者車非거諸기子티珠미寶虛妄하也도

○舍利弗言不也이

世尊是長者但令諸子得免

火難全其軀命非為虛妄

何以故若全身命便為已得玩

好之具늘沉復方便於彼火宅

而拔濟之

잇는 가니 ○ 솔샤 리 이 불 세

尊손하이長當者시러免면호諸야

목숨을오리나게엇테어노호다가몸이

수을올오면곧어늘마玩환好호엇것

便번호미드외어늘마玩환好호엇것

世尊若長者乃至不與最小

車 도호야 猶不虛妄 니이 何以故 호어 是長

者 호 先作是意 디호 我以方便 로 令子得

出 호니 以是因緣 로 無虛妄也 니호 何況

舍利弗 아 如來 도 亦復如是 야 則為一

切世間之父 야 ○ 舍刹利弗 來利弗 아 則為一

야 一 일 切 체 世 세 間 간 間 아 則 아 為 하 一

於諸怖畏衰禍憂患 과 無明闇蔽 에 永

盡無餘 야 ○ 여 則 가 及 두 而 시 衰 무 患 아 則 하 一

리 明 명 明 어 而 두 而 어 則 하 一

而悉成就無量知見 과 力 과 無所畏 고

有大神力 과 及智慧力 며 具足方便智

慧波羅蜜 고 大慈大悲 를 常無懈倦 아

恒求善事야利益一切니 ○ 無량知무量디

見見견과과力力과과無無所所畏畏외외를를다

일일일우우고고큰큰神神신신力力과과智智디디慧慧해해力力

羅羅을두두며며方方방방便便변변智智디디慧慧해해波波바

비비를求求구구하하야야一一열열切切체체를를利利益益의

衆生의 而生三界朽故火宅야爲度

蔽三毒之火야教化야令得阿耨多羅

三藐三菩提게니 ○ 三삼火화界계宅택에서어거나

衆衆중生생生싱의의老老病병死死憂우患환의의아

호기그린삼毒독브레濟제度도
호물爲위호야教正化화호야阿아
釋多다羅라삼藐악삼
菩보提테를得득삼藐악삼
善보提테를得득삼藐악삼

見諸衆生。爲生老病死憂悲苦惱之

所燒者。亦以五欲財利故。受種種

苦。又以貪著追求故。現受衆苦。

後受地獄畜生餓鬼之苦。若生天

上。及在人間。貧窮困苦。愛別

離苦。冤憎會苦。如是等種種諸苦

衆生。沒在其中。歡喜遊戲。

不覺不知고며고不驚不怖고며고亦不生厭고며고

不求解脫고於此三界史宅에東西馳고

走고雖遭大苦고不以爲患다○

死고보디衆중生싱돌히生싱老로病병
憂우悲비苦고懺노아슬며슬

八고모미드외며호五오欲욕財지利리
전大로種종종苦고受受슈고

며호전大로現현한生상애한苦고受受
호前大로現현한生상애한苦고受受

상슈餓아다鬼後후에地디獄옥畜畜生
호餓아다鬼後후에地디獄옥畜畜生

에이天셔도上象간나하호中설운신問問
호天셔도上象간나하호中설운신問問

나와는듯오고니와아희는苦고와마우니맛
호듯오고니와아희는苦고와마우니맛

고애衆중생노상이그중등애다문하
서즐겨호노년노릇하야覺략다문하

며지아디티몬며소늘라아다하
저되아니하며소늘라아다하

하며대화삼求에東아西코이삼
계며대화삼求에東아西코이삼

비록큰고를맛나도
시름삼다아니하나도

舍利弗아佛이見此已고便作是念
舍利弗아佛이見此已고便作是念

我爲衆生之父디應拔其苦難야與
我爲衆生之父디應拔其苦難야與

無量無邊佛智慧樂야令其遊戲리
無量無邊佛智慧樂야令其遊戲리

舍利弗아如來一復作是念디若我
舍利弗아如來一復作是念디若我

但以神力과及智慧力로捨於方便고
但以神力과及智慧力로捨於方便고

爲諸衆生야讚如來知見과力과無所

畏者면衆生이不能以是로得度라

○ 舍利弗舍利弗호다내부테이로보고

아비드외야시란디그苦고難난을

빠허無무량無무邊변호佛불智

리혜舍刹利弗아노녀노릿제호

산가이念념을호디혜혜力력으로方

야변을바리고衆生싱돌爲위호

無무所소畏외를기리면衆生싱

所以者何是諸衆生未免生老病

死憂悲苦惱아而爲三界火宅의所燒

何由能解佛之智慧○○아○아○아

중생生심心돈頓히히생生심心老老로로병病死死아아

우우삼三계界계界火火화火宅宅의의소소유유미미드드외외

어어니니어어딜딜브브터터능능하하부부텃텃지지다다慧慧

復身手一有力도而不用之고但以

殷勤方便로勉濟諸子의火宅之難호

然後아各與珍寶大車니如來도亦

復如是아雖有力과無所畏도而不

樂住三界火宅여호勿貪麤弊色聲香味

觸也라호若貪著生愛면호則為所燒라호리

○宅이마味론호觸디너貪히삼三삼界계火대宅화

다가貪탐著착마닥와야리닷라오
물배면손유마드와리라

汝나速出三界면호當得三乘호聲聞辟支

佛부乘승我今為汝야호保任此事호노

汝終不虛也나호汝等이但當勤脩精進

如來호以是方便호誘進眾生호고

復作是言호汝等이當知호此三乘法

은 皆是聖所稱歎라 自在無繫며 無所

依求니 乘是三乘면 以無漏根과 力

과 覺과 道와 禪과 定과 解脫와 三昧等

而自娛樂야 便得無量安隱快樂리

라니 ○ 三삼계에 썬리나면 반도

지佛불乘승을 득득하리 내내

종태虛허티아니를 민비맛노나내

흥야如여來리애야나소방便또아로

승法호법은 다히반드기알라이삼

法華經卷二

三三

讚讚歎歎歎
야미인인덕업스
터브터求구
홀디업

△근과力삼乘승을
트면漏루업스
근과力삼乘승을
트면漏루업스

과定定과解하
脫탈와三삼
昧미等
과定定과解하
脫탈와三삼
昧미等

안흔현히즐거우
를
得득후리라후
나

舍利弗若有衆生內有智性從

佛世尊聞法信受殷勤精進欲

速出三界自求涅槃是名聲聞

乘如彼諸子爲求羊車出於火

宅
니닷하○승생싱이안해
智디성이

이서佛불世제尊존을조차法법드
고信신受受令令야부즈러니精정進進

야진하아삼界界에설리나고저하
야제涅아별槃반求求하느니라일후미

聲성聞문乘승이니더諸제子子화
羊양車車거求求호몬爲爲위하야火火화

宅宅되애라나
듯하나라나

若有衆生이從佛世尊야聞法信受야

殷勤精進야求自然慧야樂獨善寂야

深知諸法因緣야是名辟支佛乘야

如彼諸子一爲求厥車야出於火宅야

라니 ○ 존하다카衆중生生싱이佛불世世尊尊
존하온조차法법드고信신受受令令

求此乘故 名爲摩訶薩 如彼諸子

爲求牛車 出於火宅 ○ 爲衆

중생심이 불보살세존을 조차법
법등고신受슈야브즈러니精

정진을 닦아 일체와 무와
불지자와 자스然선지체와 무

인척디와 사來리디見견과
無무소와 외를 구하디無무량

광衆중생안히 즐겉케하야 천념
야便번안안히 즐겉케하야 천념

신은刹리盡의 일후마대乘승
도脫탈하느닌의 일후마대乘승

일후미摩마이訶하이薩살이니
菩보薩살이니 諸제

자야火宅우車애나 구흥위
자야火宅우車애나 구흥위

舍利弗^아如彼長者^아見諸子等^의安

隱得出火宅^야到無畏處^고自惟財富

無量^야等以大車^로而賜諸子^니

○^舍舍利弗^아長者^야見諸子等^의安隱^한處^에自^가惟^니財富^이

無量^한等^이以^어大車^로而^로賜^어諸子^를

如來^도亦復如是^야爲一切衆生之父

若見無量億千衆生^이以佛教門^{으로}

出三界苦怖畏險道^야得涅槃樂^면如

如來^도亦復如是^야爲一切衆生之父

來一爾時에便作是念호我有無量無

邊智慧와力과無畏等諸佛法藏호是

諸衆生이皆是我子라等與大乘호不

令有人이獨得滅度야皆以如來호

滅度로而滅度之호○如호來호

호야호일호다호切호衆호生호信호의호아호비호드

중生호싱호이호부호덕호教호門호문호으호로호三호삼

界계호苦호교호저호프호險호험호길호헤호나호涅호설

槃반호樂호락호得호득호호호모호보호면호如호여호來호리

一그호불호은호이호念호념호을호호호다호나호無호무호量호리

아뒷노니이모든衆중생이 다의주
어사르미하오하대乘승을주
마라다如여來리人滅滅도로滅
멸도호
라라코

是諸衆生脫三界者悉與諸佛人禪

定解脫等娛樂之具니호니皆是一相一

種라이聖所稱歎며能生淨妙第一之樂

니호니○이衆중생싱돌삼界계버스
라○닐다諸제佛불人禪선定정解

하○일相等등즐길스물주니다
이○일相상일種중이라聖성人

能人일코라讚간歎탄호는거기
능인일호미妙호第데기
능인일호미妙호第데기

해엿樂나라온

舍利弗_아 如彼長者_아 初以三車_로 誘

引諸子_아 然後_에 但與大車_아 寶物_로 莊

嚴_하 安隱第一_하 然彼長者_아 無虛妄

之咎_니 ○_하 者_아 舍利弗_아 不_아 見_아 世_에 尊_을 長_을 養_을

諸_를 子_를 不_아 見_아 世_에 尊_을 長_을 養_을 者_아 不_아 見_아 世_에 尊_을 長_을 養_을

大_를 便_을 安_을 隱_을 第一_을 然_을 彼_를 長者_를 無_을 虛_을 妄_을

如_를 來_를 亦_을 復_을 如_를 是_를 無_을 有_을 虛_을 妄_을 初_를 說_을

如來_도 亦復如是_아 無有虛妄_하 初說

三乘_아引導_아衆生_아然後_에但_以大乘_로

而度脫_之나_나何以故_오如來_一有無

量_{智慧}와力_과無所畏_와諸法_之藏_아

能與一切衆生大乘之法_간마但_不盡

能受_나라舍利弗_아以是_{因緣}로當_知

라諸佛_이方便力故_로於_一佛乘_에分

別說_三나_라○如_虛허_후망_이압_스나_하

合_인치_삼도_삼후_승에_오직_대乘_승을_오리

未_로도_도그_지압_스니_엇데_어와_力를

과無무_어能_능히_이一_일切_切諸_諸法_法藏_藏生_生靈_靈

을大_大能_能히_히受_受法_法을_을주_주긴_긴마_마라_라삼_삼자_자

利_利리_리弗_弗불_불아_아因_因緣_緣연_연으_으로_로반_반득_득

전_전차_차로_로호_호佛_佛불_불乘_乘승_승에_에문_문라_라고_고부_부로_로

佛_佛이_이欲_欲重_重宣_宣此_此義_義而_而說_說偈_偈言_言다_다샤_샤○

부_부테_테이_이부_부를_를다_다시_시퍼_퍼려_려○_○

譬_譬如_如長_長者_者一_一有_有一_一大_大宅_宅라_라○_○대_대장_장비_비건_건

바_바이_이호_호크_크지_지○_○其_其宅_宅이_이久_久故_故而_而復_復

頤_頤弊_弊야_야堂_堂舍_舍高_高危_危라_라柱_柱根_根이_이摧_摧朽_朽며_며

梁棟 이 傾斜 基陛 墮毀 墻壁 이

圯圻 泥塗 墮落 覆宮 이 亂墜

椽栒 差脫 周障 屈曲 雜穢 充

遍 有五百人 이 止住 其中 雜穢 充

파바오라하고 소허리호당송샤그노
여보담과리기울며기호터다며홀볼론

러가이씨허러블드르며세르며두분늘에어트

루막고고본디雜잡더러운거세그

도거늘고오오백샨라미그중등에

나잇다 ○ 鷓鴣 鷓鴣 와 烏鷓鴣 과 蚊

蛇蠹蝮와蜈蚣蚰蜒고守宮百足과鼯

狸鼯鼠와諸惡蟲輩一交橫馳走하○

鷓鴣치 象象 鷹鷹 鷹鷹 雀雀 烏烏 鵲鵲 鳩鳩

鳩鳩 鴿鴿 鴿鴿 蚘蚘 蚘蚘 蛇蛇 蛇蛇 蝮蝮 蝮蝮 蜈蜈 蜈蜈 蚣蚣 蚣蚣 蚰蚰 蚰蚰 蜒蜒 蜒蜒

鼠鼠 鼯鼯 鼠鼠 鼯鼯 狸狸 狸狸 鼯鼯 鼯鼯 鼠鼠 鼠鼠 鼯鼯 鼯鼯 狸狸 狸狸 鼯鼯 鼯鼯

屎反臭處에不淨이流溢은蟻娘諸蟲

이而集其上하狐狼野干이咀嚼踐踏

하齊齧死屍하骨肉이狼藉은○썩썩

는썩 해해 조조 티티 몬몬 흔흔 거거 시시 홀홀 리리 넙넙 빠빠 거거 든든 몬몬 썩썩 구구 우우 리리 여여 터터 가가 지지 벌벌 에에 그그 유유

夜叉惡鬼 食取人肉 毒蟲之屬

諸惡禽獸 子乳產生 各角歲護

夜叉一競采 爭取食之 食之既飽

惡心 轉熾 闍諱之聲 甚可怖

畏 〇 夜叉 轉熾 闍諱之聲 甚可怖

러가짓모던 舍金 護 護 호

持디머그든 夜叉 叉 叉 호

소리 甚 심 이 盛 성 어 루 자 프 며 호 는

鳩鵲 文 雀 鬼 蹲踞 土 壇 或 時 離 地 息

一尺二尺하往하返하遊하行하縱하逸하嬉하戲하

捉하狗하兩하足하撲하令하失하聲하以하脚하加하頸하

怖하狗하自하樂하○하鳩하鳩하葉하茶하鬼하鬼하

갈안하자하시하후하時하시하에하다하해하버하으하를하하

녀전하근하노하로하하하며하도하라하오하며하노하를하하

제가하히하저하리하고하하하두하바하를하하

復有諸鬼하其身하長大하裸하形하黑하瘦하

常住其中하發하大하惡하聲하呻하求하

食復有諸鬼하其咽하如針하復有

諸鬼 | 首如牛頭 홀홀 或食人肉 여홀 或

復取狗 길홀 兒 크니 ○ 소홀 或 한 或 검 或 원 或 거 或 모 或 기

야 상 네 어 그 中 등 구 에 이 서 큰 모 갓 소 시 릴 내

소 모 머 리 바 늘 은 것 들 며 소 한 갓 거 러 시 미 고 리

소 길 가 머 그 막 며 더 시 혹

頭髮 이 鬢亂 여홀 殘害兇險 여홀 飢渴所逼

로 으 叫喚馳走 여홀 ○ 러 머 우 리 터 홀 리 야 허 터 리 어 며 즈

兇 홀 홀 다 며 險 홀 홀 며 주 으 리 고 목

夜叉餓鬼 와 諸惡鳥獸 | 飢急四向 야홀

鵬就鳥諸鳥와 鴛槃茶等 이 周樟惶怖야

不能自出며 ○ 이 밍서 게 거 논 근 지 비 흥 사

후에 미 자 갓 가 셔 은 나 득 아 브 리 오 니 란 스 러 시 네 후

면 이 일 보 시 예 그 브 리 다 盛 성 흥

리 와 震 진 동 흥 과 야 비 야 디 여 물 어 디

거 놀 모 든 귀 귀 神 신 돌 히 소 러 흥 새

와 鳩 구 槃 반 茶 다 등 이 周 주 樟 창

惡獸毒虫의 窟竄孔穴며 毗舍闍鬼

亦住其中 나 더 薄福德故 로 爲火所逼

야^호共相殘害야^호飲血散肉^{여^호}野干之屬

이並已前死^{느^어}諸大惡獸^一競來食

散^{여^호}梟烟이蓬燒야^호四面에充塞^{여^호}○

모딘중싱^毒독^훈벌^에금^수머^곳
블^며毗^비舍^샤閣^샤鬼^위소^그중^동

에^住터^와도^니福^복德^덕열^운전^大害^해
블^의다^와도^니머^흥외^야다^서르^害해

간^의피^마다^시머^고몬^기져^머주^그갯^머野^야干^干
간^의무^리다^시머^고몬^기져^머주^그갯^머野^야干^干

러^큰모^나는^중싱^이드^와와^스면^며어^더
러^큰모^나는^중싱^이드^와와^스면^며어^더

호^며도^어
호^며도^어

蜈蚣蚰蜒과毒蛇之類一爲火所燒야^호

爭走出穴

늘커

鵩槃荼鬼

鵩

隨取而食

며

○

類蜈蚣

리공소유

미드

외야드

타드

사드

라곰키마조차아사머그며

거늘

鳩구槃반

茶

又諸餓鬼

頭上

火然

飢渴

熱惱

周樟悶走

니더

○

또한 餓아鬼귀며

주설워으리머목드르며더위

其宅如是

甚可怖畏

야 毒害火災

衆難非一

이리

○

그지비이괴 毒

독송해나야화뜻저한 難

是時宅主一在門外立하聞有人言

하汝의 諸子等의 先因遊戯하來入此

宅하稚小無知하歡娛樂著하長者

一聞已하驚入火宅하方宜救濟하令

無燒害하告喻諸子하說衆患難

하惡鬼와 毒蟲과 災火一蔓延하衆苦

一次第로 相續不絶하毒蛇하蚊虻과 及

諸夜叉와 鳩槃荼鬼와 野干狐狗와 鷓鴣

鷲鴟梟와 百足之屬의 飢渴惱急하甚

可怖畏니此苦一難處늘况復大火

히야사
놀녀
○
이
사
집
추
주
오
문
의
아
의
아
돌

지돌
의히
와몬
저
노
저
노
아
롬
업
서
즐
겨
樂

고요
놀
라
다
화
宅
되
에
드
라
方
방
宜
의
든

로
救
구
하
야
야
諸
제
予
스
드
害
해
닐
어
아
여

리
患
환
難
애
난
을
닐
오
티
모
단
鬼
귀
화

毒
독
흔
별
애
난
을
닐
오
티
모
단
鬼
귀
화

반환
荼
다
鬼
귀
와
野
야
干
간
狐
호
狗
구
槃

무와
리
주
으
리
며
목
몬
라
설
위
息
급
하

어^야甚^심히^히저^저프^프니^니어^어菩^菩고^고리^리이^이슈^슈미^미
어^어럽^럽거^거늘^늘아^아하^하물^물며^며또^또큰^큰브^브리^리이^이스^스너^너

놀^놀아^아

諸^諸子^子 | 無^無知^知야^야 雖^雖聞^聞父^父 誨^誨도^도야^야 猶^猶故^故樂^樂

著^著야^야 嬉^嬉戲^戲 不^不已^已니^니 ○ 諸^諸子^子 猶^猶故^故樂^樂

아^아비^비그^그리^리쇼^쇼물^물드^드려^려도^도스^스지^지넷^넷양^양하^하
로^로즐^즐겨^겨著^著약^약하^하야^야노^노르^르스^스솔^솔마^마다^다야^야하^하

니^니 ○ 是^是時^時長^長者^者 | 而^而作^作是^是念^念티^티 諸^諸子^子

如^如此^此야^야 益^益我^我 愁^愁惱^惱니^니 今^今此^此舍^舍宅^宅이^이

無^無一^一可^可樂^樂늘^늘어^어 而^而諸^諸子^子等^等이^이 耽^耽酒^酒嬉^嬉戲^戲

嗚^嗚不^不受^受我^我教^教니^니 將^將爲^爲火^火害^害고^고리^리 卽^卽便^便

思惟_라設_라諸_라亦_라便_라告_라諸_라子_라等_라我_라有

種_라種_라珍_라玩_라之_라具_라妙_라寶_라好_라車_라羊_라車_라鹿_라車

大_라牛_라之_라車_라今_라在_라門_라外_라汝_라等_라出_라來

吾_라爲_라汝_라等_라造_라作_라此_라車_라隨_라意_라所_라樂

可_라以_라遊_라戲_라○_라念_라長_라當_라者_라諸_라子_라以

此_라車_라遊_라戲_라○_라念_라長_라當_라者_라諸_라子_라以

此_라車_라遊_라戲_라○_라念_라長_라當_라者_라諸_라子_라以

此_라車_라遊_라戲_라○_라念_라長_라當_라者_라諸_라子_라以

此_라車_라遊_라戲_라○_라念_라長_라當_라者_라諸_라子_라以

此_라車_라遊_라戲_라○_라念_라長_라當_라者_라諸_라子_라以

法華經疏卷第二

후보 명염 오 후는 대 우 룬 두 되 양 차
거 處 辱 車 거 大 大 牛 車 거 羊 車
門 門 門 門 門 門 門 門 門 門

희 爲 위 호 야 이 술 월 계 쏘 니 브 내 줄
교 爲 위 호 야 이 술 월 계 쏘 니 브 내 줄
교 爲 위 호 야 이 술 월 계 쏘 니 브 내 줄

교 爲 위 호 야 이 술 월 계 쏘 니 브 내 줄
교 爲 위 호 야 이 술 월 계 쏘 니 브 내 줄
교 爲 위 호 야 이 술 월 계 쏘 니 브 내 줄

諸子 聞說如此諸車 卽時奔競

馳走而空 到於空地 離諸苦難

○ 諸子 卽時 離諸 苦難
오 諸 子 卽 時 離 諸 苦 難
오 諸 子 卽 時 離 諸 苦 難

苦 難 離 諸 苦 難
苦 難 離 諸 苦 難
苦 難 離 諸 苦 難

長者 見子 得出火宅 住於四衢

坐師子座 而自慶言 我今快樂

과此諸子等。生育。甚難。愚小無

知_하而_하入_하險宅_하。多_하諸_하毒蟲_하。魑_하魅_하可_하

畏_하。大_하火_하猛_하燄_하。四_하面_하俱_하起_하。而_하此_하諸

子_하會_하樂_하嬉_하戲_하。我_하已_하救_하之_하。令_하得_하

脫_하難_하。是_하故_하諸_하人_하。我_하今_하快_하樂_하。○長

者_하。往_하矣_하。火_하宅_하。子_하不_하處_하。此

애_하안_하자_하제_하慶_하경_하賀_하하_하。아_하諸_하제_하子_하조_하디_하돌_하내

이_하계_하환_하하_하즐_하겁_하과_하라_하아_하諸_하제_하子_하조_하디_하돌_하내

미_하나_하하_하고_하저_하미_하아_하심_하하_하어_하렵_하저_하함_하하_하

며_하지_하리_하드_하니_하어_하러_하가_하저_하프_하며_하큰_하블_하막_하오_하

去聲

去聲

부르리四公面에다닐어는이諸제
子子四貪탐언야즐겨노릿호더
내호마이故구호야難난버수들得
케호나이이란호로카룸돌하내
현파라즐 ○爾時諸子 知父의安
坐고皆詣父所而白父言 호願賜我
等三種寶車如前所許 호諸子
出來當以三車隨汝所欲 호
다수正是時니 惟垂給與 호
子호다아이便安히안호
알호다아이便安히안호
원호다아이便安히안호
다호다아이便安히안호

子欲욕是은一나조오연반다기세술위로내

작히時時기節節절이니오쇼저우

長者長者一大當當아庫藏藏이衆多衆多아金銀銀瓠

璃璃碑碑磔磔瑪瑪瑙瑙以衆寶物以衆寶物로造諸大車로造諸大車아

裝裝校校嚴嚴飾飾아周市市欄欄楯楯아四面面에懸鈴

아金繩繩로交絡交絡아真珠珠羅羅網網을張施其

上上아金華華諸諸瓔瓔이處處垂下處處垂下아衆綵綵雜

飾飾을周市圍繞周市圍繞아柔軟軟縵縵續續로以爲齒

褥褥아上妙妙細細氎氎價價直千億直千億아鮮白白淨淨潔

로 以覆其上 政有大白牛 一肥壯多力

여 形體姝好 以駕寶車 多諸僮從

이 而侍衛之 以是妙車 等賜諸子

늘 야 ○ 長 廣 者 皆 一 高 廣 加 金 銀 是 疏 珣 瑤 瑪 瑙 珠 玉 等 賜 諸 子

스 리 碑 材 硨 磲 大 瑪 瑙 珠 玉 等 賜 諸 子

에 妙 寶 珠 玉 等 賜 諸 子

화 珠 玉 等 賜 諸 子

빛 난 雜 寶 珠 玉 等 賜 諸 子

코 보 는 라 온 口 舌 珠 玉 等 賜 諸 子

이근이세한聖人신中등잇尊

一切衆生이皆是吾子니深著世樂야

無有慧心야三界無安미猶如火宅야

○일切衆生성이타이내아

다아니世世間樂락가피著

○便安安心업수마차화宅잇근

○한음고니고득호

常有生老病死憂患호야○상네生성

우患환○如是等火니熾然不息호

나 ○ 中 野 閑 寂 然 閑 居 矣

如來法已離三界空宅 寂然閑居

安慶林野 今此三界 皆是我有

其中眾生 悉是吾子 而今此慶

多諸患難 唯我一人 能為救護

라 니 ○ 如 來 法 已 離 三 界 空 宅 矣 寂 然 閑 居 矣

세로 오이 날사라 수플미해변안거이

머그중동衆중생이타가짓患한

난이만하니오적나흐차르미하

雖復教詔하而不信受하於諸欲樂

에 貪著이 深故라 ○ 비록 소견이 受 슈아

나 호는 나니 여러 가려 欲 욕 染 염 貪 탐 著 착 이 여러 가려 厭 치라

以是方便로爲說三乘하令諸衆生

知三界苦하開示演說出世間道하

○ 이 方 방 便 변 으 로 爲 위 하 야 삼 乘 승 을 닐 어 衆 중 생 상 등 하 로 삼

삼 界 계 곱 고 說 설 아 세 間 간 道 도 를 여 러 화 야 피 離 리 오 니

是諸子等이 若心決定면 具足三朋과

及六神通하有得緣覺과不退菩提

可이니 ○이淨乘승은微미묘묘호야清청

間外야반부터우업수미드

一切衆生의 所應稱讚야 供養禮拜니

無量億千諸力解脫와 禪定智慧와 及

佛餘法니 得如是乘면 令諸子等로 日

夜劫數에 常得遊戲야 與諸菩薩와 及

聲聞衆로 乘此寶乘야 直至道場라

○一일切劑衆중生生의 일크라讚

諸力맛당호니 無무량량德덕의 千천

다 慧혜와 佛부 得득나 法법이 宗宗
은 乘승을 得得하 諸諸제 子子
로 日일 夜야 劫劫數數수 에 上上
려 劣劣녀 노릇하 諸諸제 菩菩薩
聲聲 聞문 衆衆 中中 實實 보 乘乘
승 道도 場場 當當 巴바 加가 乘乘

以是因緣로 十方에 諦求도야 更無餘
乘 除佛方便라 니 ○이 因인 緣緣 연의
승 求求 니 부 方方 방 便便 은 方方 乘乘
告 舍舍利 弗弗 노 汝諸人等 皆是 吾子
오 我則是 父니 汝等 累劫 衆苦
의 所燒 我 皆濟拔 令出 三界

以是因緣로 十方에 諦求도야 更無餘
乘 除佛方便라 니 ○이 因인 緣緣 연의
승 求求 니 부 方方 방 便便 은 方方 乘乘
告 舍舍利 弗弗 노 汝諸人等 皆是 吾子
오 我則是 父니 汝等 累劫 衆苦
의 所燒 我 皆濟拔 令出 三界

以是因緣로 十方에 諦求도야 更無餘
乘 除佛方便라 니 ○이 因인 緣緣 연의
승 求求 니 부 方方 방 便便 은 方方 乘乘
告 舍舍利 弗弗 노 汝諸人等 皆是 吾子
오 我則是 父니 汝等 累劫 衆苦
의 所燒 我 皆濟拔 令出 三界

以是因緣로 十方에 諦求도야 更無餘
乘 除佛方便라 니 ○이 因인 緣緣 연의
승 求求 니 부 方方 방 便便 은 方方 乘乘
告 舍舍利 弗弗 노 汝諸人等 皆是 吾子
오 我則是 父니 汝等 累劫 衆苦
의 所燒 我 皆濟拔 令出 三界

以是因緣로 十方에 諦求도야 更無餘
乘 除佛方便라 니 ○이 因인 緣緣 연의
승 求求 니 부 方方 방 便便 은 方方 乘乘
告 舍舍利 弗弗 노 汝諸人等 皆是 吾子
오 我則是 父니 汝等 累劫 衆苦
의 所燒 我 皆濟拔 令出 三界

以是因緣로 十方에 諦求도야 更無餘
乘 除佛方便라 니 ○이 因인 緣緣 연의
승 求求 니 부 方方 방 便便 은 方方 乘乘
告 舍舍利 弗弗 노 汝諸人等 皆是 吾子
오 我則是 父니 汝等 累劫 衆苦
의 所燒 我 皆濟拔 令出 三界

以是因緣로 十方에 諦求도야 更無餘
乘 除佛方便라 니 ○이 因인 緣緣 연의
승 求求 니 부 方方 방 便便 은 方方 乘乘
告 舍舍利 弗弗 노 汝諸人等 皆是 吾子
오 我則是 父니 汝等 累劫 衆苦
의 所燒 我 皆濟拔 令出 三界

以是因緣로 十方에 諦求도야 更無餘
乘 除佛方便라 니 ○이 因인 緣緣 연의
승 求求 니 부 方方 방 便便 은 方方 乘乘
告 舍舍利 弗弗 노 汝諸人等 皆是 吾子
오 我則是 父니 汝等 累劫 衆苦
의 所燒 我 皆濟拔 令出 三界

나호 ○ 舍刹利弗 들 버려 내 노 너
○ 희모든 카룸 들 버려 내 노 너

나 고난의 슬유 마 어 늘 내 다 거 려 해 허
○ 삼계 에 ○ 我 | 雖先說汝等

나 삼계 에 ○ 我 | 雖先說汝等

의 滅度 나호 但 盡 生 死 而 實 不 滅

니 어 리 今所應作 은 唯 佛 智 慧 若 有 善

薩 이 於 是 衆 中 能 一 心 聽 諸 佛 實

法 호 諸 佛 世 尊 雖 以 方 便 所 化 衆

生 是 皆 是 菩 薩 이 니 ○ 내 비 록 너 희 滅

니 리 나 오 직 生 死 而 이 아 니 다 온 이 아

홀이 온 오직 부덕지 혜혜니 능다
 가 곱보살이 이모든 중등에 능다
 히 일심의로로 제불인實실
 法법을 드리오시면 제불世
 세尊존이 비로方方便은 보살이化
 화은衆生은 다 곱보살이
 라니 ○若人아小智야深著愛欲어

은 爲此等故로說於苦諦나衆生이心

喜야得未曾有나佛說苦諦一眞實無

異라니若有衆生이不知苦本야深著

苦因야不能暫捨타어爲是等故로方

便說道며諸苦所因은貪欲이爲本나

若滅貪欲면無所依止야滅盡諸苦

名第三諦오為滅諦故로脩行於道

야라離諸苦縛이名得解脫라이니 ○ 다

카차르미智디慧혜解커愛이欲욕
에기피著닥거든아들為위호는전

차로苦고諦테를닐오니衆중生生성
이미스스매깃거거未미會會중有유를得

득호야부터닐온고諦다가眞眞眞實

生生싱이苦고추本本은아디몬호야能능하야苦苦

고因안에기피著닥호야能능하야苦苦
전도보리디몬거든이돌為위호호

도호미諸제苦고의因인호호전會會
欲욕이미諸제苦고의因인호호전會會

욕^을은滅^멸호^호면보^보터^터소^소디^디업^업호^호스^스니
타^타호^호야^야諸^諸제^제苦^苦고^고를滅^滅멸^멸盡^盡잔^잔호^호스^스니

일^일후^후미^미第^第테^테三^三삼^삼講^講테^테오^오滅^滅멸^멸諦^諦테^테
爲^爲위^위혼^혼전^전차^차로^로道^道도^도를^를닷^닷카^카行^行행^행호^호

라^라호^호야^야여^여러^러受^受슈^슈若^若고^고미^미요^요문^문여^여호^호
요^요마^마일^일후^후미^미解^解하^하탈^탈得^得득^득호^호미^미라^라

是人^이於^어何^에而^어得^어解^어脫^어오^오리^리但^단離^離虛^虛

妄^을名^을爲^을解^을脫^을명^이언^언其^其實^은未^未得^得一^一切^切

解^解脫^을信^을佛^을說^을是人^이未^未實^은滅^을度^를노^노라^라호^호

斯^이人^이未^未得^得無^無上^上道^도故^로我^我意^에不^不欲^欲

令^令至^至滅^을度^를라^라호^호노^노○[○]脫^이탈^을을^을得^을득^을호^호리^리오^오하^하

호^호脫^이탈^을이^이라^라홀^을부^를니^니언^언명^이그^그實^은실^은은^은

一 部一切解脫得得
 度도 상도니라
 無무도 상도니라
 世에코저아니하노라
 無無무도 상도니라
 世에코저아니하노라

我爲法王於法自在安隱眾生

호야故現於世汝舍利弗我此法

印爲欲利益世間故說
 ○法

법왕이든외야法법에自在
 호야衆生을便安안케호러

호약그걸시世間애現현호
 나舍사라弗블아내야法법인

은世世間爲위호시나리호
 자호은爲위호시나리호

在所遊方이勿妄宣傳라若有聞者이

隨喜頂受면當知是人은阿鞞跋致라

○傳잇는던타은말라니는方방에간대로로퍼

喜희라야야정바기로受수면반드

라니○若有信受此經法者면是

人은已曾見過去佛와恭敬供養스

亦聞是法라니○법을다가이經경法法

佛불을보스와하공경정供공養양

법법을드르나라이法法

若人이有能信汝所說則爲見我也

亦見於汝及比丘僧并諸菩薩也

斯法華經은爲深智야說淺識이

聞之면迷惑不解니一切聲聞及辟

支佛이於此經中에力所不及이니○

신다라카시면날보미드외며또너

와비요구승과諸계善보薩

야오로보논디니다의法법華華化經

경은가픈습디를爲위하야닐온디

라닐가온識식아드르면迷미惑혹

하야아디몬支지佛불이一切一切聲聲성

미출다나라문

罪非

非

非

沒舍利弗

도

尚於此經

以信得入

근

沉餘聲聞

녀이

其餘聲聞

도

信佛語故

隨順此經

당

非已智分

라이니

○

사

利로弗블도호히경이經경에信

성문은이성녀그나문聲성聞문도

부엇하를信산하논전대로이經경

又舍利弗

憍慢懈怠

여計我見者

莫說此經

여

凡夫淺識

이深著五欲

聞도 아 不能解나 리 亦勿為說라 ○소

며야 利리 佛불 不아 信안 疑의 惑혹 亂란 心심 經경 不아 能능 說소

의 欲욕 聞문 夫부 不아 信안 疑의 惑혹 亂란 心심 經경 不아 能능 說소

능 欲욕 聞문 夫부 不아 信안 疑의 惑혹 亂란 心심 經경 不아 能능 說소

若人 不信 毀謗 此經 則斷 一切

世間佛種 或復 墮惡道 而懷 疑惑

라 ○ 아 經 多 有 疑 惑 亂 心 經 不 能 說

간 佛 不 信 疑 惑 亂 心 經 不 能 說

汝當 聽說 此人 罪報 若佛 在世 若

滅度後니。其有誹謗如斯經典見

有讀誦書持經者고輕賤憎嫉而懷

結恨면此人罪報를汝令復聽라○반네

드르리라하다리미죄부태관세問간어있

어관하다경典편을할리야사며어經

경을닐고야아외오며스며디니라일보

와총호호는아며노야아니가며디니라일보

其人命終야入阿鼻獄야具足一劫

劫盡야更生야如是展轉야至無數劫

니○ 리 ○ 그 鼻 비獄 옥 에 드러 후劫 압 이 및

고劫 압 이 다 아 다 시 나 아 곤 히 올 리

從地獄出야當墮畜生호若狗野干

其形이頹瘦며鰥黠疥癩야人所觸媿

則又復爲人之所惡賤야常困飢渴야

骨肉이枯竭야生受楚毒가다死被瓦

石니○ 리 斷佛種故로受斯罪報라○ 리 ○

地 디獄 옥 올터 하나 반 드 가畜 육 생

이 면 고 리 양 지 하 야 의 며 여 위 보 살 거

야사며소주까르미의여업게우미드외
야상혜주으라며목음로매困곤호
야색와슬과여위몰라사라서알픈
毒독을受슈호다가주거다새돌흔
니브리니佛불種종은크춘천초
로이죄죄報보롤受슈호리라

若作駝施

나

或生驢中

면

身常負重

고加諸杖捶

但念水草

고

餘無所知

나리謗斯經故

로

獲罪如是

라

有作

野干嚙來入聚落

身體疥癩

며

又無

一目

호

爲諸童子之所打擲受諸苦

痛或時致死

며

於此死已

야

更受蟒

身신其形기형長大장대五百由旬오백유수龍驤룡상

無足무족蜿蜒轉腹완연전복行행爲諸小蟲之所위주소충지소師사

食식晝夜受苦중야수고無有休息무유휴식謗斯방스

經故獲罪如是경고득죄유시○오외가나약시대

혹라귀중등에나어오마생혜프와

은것지고매를더어오작물와플와

經경을코하나론전츠로죄어두리미이

근와리라野마于간이득와면口솔

는업서모든아히의튜미득외야여

라가짓볼고痛통을受슈하다세비혹

時시에受슈호더그에주하다세비혹

의모에受슈호더그에주하다세비혹

五惑호百복由유旬순이며귀로먹고迷
미惑호고발업서그우녀귀로녀고迷
허근벌에의생라야머구미드외야낮
밤애受슈苦고야살스미업스리낮
니이經경히던전杰로罪
죄어두미이곤호리라

若得爲人면諸根이闇鈍며矧陋纏躓

者盲聾背偃야有所言說도이라人不信

受며口氣常臭야鬼魅所著며貧窮下

賤야爲人所使며多病瘠瘦고無所依

怙者雖親附人도야人不在意者若有

所得도야尋復忘失者若脩醫道者願

方治病도야 更增他疾며 或復致死며

若自有病면 無人이 救療며 設服良藥

도야 而復增劇며 若他反逆 抄劫竊

盜 如是等罪 橫羅其殃니 리 ○ 다

근까 아샤 아룸 드 고 외 鈇 요 돈 하 득 득 하 면 諸 제 根

고 손 본 고 받 절 며 는 얼 오 귀 먹 고 등

구 버 닐 온 마 리 아 셔 도 사 리 미 信 신

내 슈 아 니 하 며 입 氣 의 分 辨 이 상 年 劫

늘 아 와 는 미 브 류 미 드 외 며 病 평 하
고 여 위 오 브 터 브 들 디 업 스 며 바 록 하
다 아 니 하 며 하 다 자 득 득 호 미 브 아 서 두

도미초... 도로... 도니... 도방... 도문... 도조... 도차...
 병병고터도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이시면는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심하며하...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초하갑... 철... 철... 철... 철... 철... 철... 철... 철...
 에그...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기버...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리...

如斯罪人 永不見佛 衆聖之王

이說法教化 如斯罪人 常生難

處야狂聾心亂야永不聞法야於無數

劫야如恒河沙야生輒聾啞야諸根야

不具

여리

○

부터

몬보

리며

人象

중은

가리

엇야도이

認

訛

罪

人

象

化

화

어즈운

대

가

리

치

고

귀

먹

무나

수

劫

검

이

恒

하

涉

이리

디

문

○

常

處

地

獄

이리

디

문

○

常

處

地

獄

이리

디

문

○

常

處

地

獄

이리

디

문

○

常

處

地

獄

如是

라

○

상

네

地

대

獄

속

하

녀

나

문

대

라

귀

돈

가

히리나이經경을을허던전次
로罪죄아두미이큰호리라

若得爲人면靚盲瘖瘖며貧窮諸衰로

以自莊嚴며水腫乾瘠와疥癩癰疽와

如是等病로以爲衣服며身常臭處야

垢穢不淨며深著我見야增益嗔恚야

婬欲이熾盛야不擇禽獸니_호의_리諍斯經

故로獲罪如是라○_호의_면귀_의고미

눈멀오입_호우며_호難_호여_리

腫宗乾간瘠쇼와疥疥개癩로_호水슈
처와이러_호病병으로_호癰腫司_호

去聲 至二

六十一

며모미상내더러아운디견이셔기퍼
라위조티몬하야我아見견에기퍼
着닥하야噴呑毒유를더어嬌음欲
욕이塵하야생하야중생을글하디아니
罪죄아나두미경허던전차로

告舍利弗。若說其罪

不盡。是以緣我

故語汝。無智人中。莫說此經。

○經사刹리佛를드러가그罪죄를

닐을딘댄劫업이다아도다몬하리

려닐이오디경디리말라하노라
등에이오디경디리말라하노라

若有利根。智慧明了。多聞強識。求佛道者。如是之人。乃可爲說。若人。曾見億百千佛。植諸善本。深心堅固。如是之人。乃可爲說。若人。精進。常修慈心。不惜身命。乃可爲說。若人。恭敬。無有異心。離諸凡愚。獨處山澤。如是之人。乃可爲說。又舍利弗。若見有人。捨惡知識。親近善友。

如是之人_아에乃可爲說_며若見佛子_아

持戒清潔_야如淨明珠_야求大乘經_면

如是之人_아에乃可爲說_며若人_이無嗔

質直柔軟_야常愍一切_며恭敬諸佛

如是之人_아에乃可爲說_며復有佛子

於大衆中_에以清淨心_로種種因緣

譬喻言辭_로說法無礙_면如是之人

乃可爲說_며若有比丘_아爲一切智

四方_에求法_야合掌頂受_야但樂受

持大乘經典고乃至不受餘經一偈

如是之人아乃可為說여如人이至心

求佛舍利야如是히求經야得已

頂受고其人이不復志求餘經여亦未

曾念外道典籍면如是之人아乃可為

說라○혜혜본고여만히듣고나아

라佛道도求후위이시면이근디

천佛을보스와여리億억百백千千

원을심거기스미구드면이근디

계	상	미	루	승	조	보	하	흔	카	라	카	호	미	타	며
佛	배	眞	爲	經	하	되	어	번	르	소	름	오	숨	다	慈
불	일	진	위	경	조	佛	루	親	미	솔	에	학	업	카	조
을	은	심	하	求	호	불	爲	친	모	야	하	산	거	하	심
恭	切	삼	야	호	朋	부	위	친	친	어	러	잔	여	려	차
공	체	업	불	호	明	호	호	근	지	리	루	澤	러	마	닷
해	를	처	을	이	珠	야	호	호	디	弗	爲	되	凡	공	미
경	어	고	다	근	쥬	戒	올	면	識	블	위	애	범	공	精
호	엇	드	며	호	근	계	올	의	식	아	호	야	이	공	정
면	배	며	호	차	호	를	다	근	보	호	야	시	우	경	進
이	너	보	다	룸	야	다	며	호	리	다	블	면	를	호	앗
근	기	드	카	혜	대	녀	호	차	고	카	올	이	역	호	진
흔	여	라	차	야	대	목	다	룸	롬	보	디	근	희	다	호
사	諸	와	르	어	乘	고	카	에	선	되	니	호	호	다	야
														호	상

니^호면이^호근^호하^호름^호가^호하^호어^호
루^호爲^호위^호야^호닐^호을^호디^호니^호라^호

告舍利弗^{나^호노}我說是相求佛道者^만

窮劫^{도^호야}不盡^{니^호리}如是等人^아則能

信解^{니^호리}沒當爲說妙法華經^{라^호○}舍

刹^호리^호弗^호블^호드^호려^호니^호리^호노^호니^호이^호相^호상^호갓^호
佛^호블^호道^호도^호求^호구^호릴^호내^호닐^호을^호딘^호댄^호劫^호

가^호리^호미^호야^호도^호다^호몬^호하^호信^호신^호解^호회^호라^호니^호

經^호반^호드^호기^호妙^호묘^호法^호법^호華^호화^호라^호

妙法蓮華經信解品第四

余時慧命須菩提^와摩訶迦旃延^과摩

訶迦葉 과 摩訶目犍連 이 從佛所 와

聞未曾有法 과 世尊 이 授舍利弗阿耨

多羅三藐三菩提記 고 發希有心 야

歡喜踊躍 야 ○ 그 보 고 提 고 慧 히 命 명 須 수 舍 舍 喜 喜

가 旃 전 延 연 摩 마 訶 하 目 목 捷 捷 誥 고 連 련 迦 가 葉 엽 世 세

세 尊 존 未 미 曾 증 有 유 法 법 阿 아

稱 多 다 羅 라 三 삼 藐 藐 三 삼 菩 菩 提 提 希 希 有 有

의 有 유 心 심 踊 踊 躍 躍 希 希 有 有

即從座起 야 整衣服 고 偏袒右肩 고 右

膝著地하一心合掌하曲躬恭敬하

瞻仰尊顏하而白佛言하我等하

居僧之首하年並朽邁하自謂已得하

槃하이라無所堪任하不復進求阿耨하

羅三藐三菩提하다다○나하러하와하로하

무고올흔엇개기우루매왔고올
무름씩해다하기일심으로승합

掌하손하顛하간하몸하구하펴하恭하공하경하부하텃하리

손오덕우리중의머리여이시며나
히다늘그우며대너교다흥마이濕하날하槃하

반은득득호라하야아轉하축하다맛돌게
시업서느와야아轉하축하다맛돌게

所以者何어世尊이令我等로出於

三界라得涅槃證시又수我等이

年已朽邁시於佛敎化菩薩阿耨多羅

三藐三菩提에不生一念好樂之心다

中○以得三菩提界世尊이樂반證중

을마늘글사부터도보살敎교化

화하는시阿아耨아耨아多다羅라三삼藐藐

三藐三菩提에不生一念好樂之心다

我等이今於佛前에聞授聲聞阿耨多

羅三藐三菩提記고 합心甚歡喜아得

未曾有야不謂於今에忽然得聞希有

之法호니深自慶幸아獲大善利니無

量珍寶를不求自得다○ 부우리알오는

聲 성聞 문 을 阿 아 耨 녹 多 다 羅 라 느

삼 삼藐 막 삼 삼 菩 보 提 데 記 괴 심 기 사

문 들吞 고 미 스 매甚 삼 히 갖 겨 未 마

曾 증有 유 를 得 득 호 야 오 느 문 득 希

의 유法 법 오 니 기 피 내慶 경 幸 흥

다 아大 대 호 스 오 니 기 피 내慶 경 幸 흥

호 아大 대 호 스 오 니 기 피 내慶 경 幸 흥

스 보大 대 호 스 오 니 기 피 내慶 경 幸 흥

과 이大 대 호 스 오 니 기 피 내慶 경 幸 흥

○世尊하我等이수者애樂

說辭喻아以明斯義이호다辟若有人이

年既幼稚아捨父逃逝아父住他國이호

或于二十至五十歲나리○世우尊존하

피喻유를 즐겨 닐어 이브 들본 교리

이다 가 줄 비 간 만 사 르 마 나 히 호 마

거 머 나 아 비 해 오 리 래 고 도 망 호 사 속 열

窮困아馳聘四方아以求衣食가다漸다

漸遊行아遇向本國나리○나 히 호 마 長

은 너 욱 호 생 窮 궁 困 곤 호 야 四 方 漸 점 漸 점 노

너도너도민
마초아
한
하

其父하先來하求子不得하中止一城

其家하大富하財寶하無量하金

銀琉璃珊瑚琥珀珠等하其諸倉

庫하悉皆及溢하多有僮僕하臣佐吏

民하象馬車乘하牛羊하無數하出

入息利하乃遍他國하商估賈客하亦

甚眾多하○하그아비몬어더하城성구

에中등止지하였더니그지엄저金금
가스며러천량보비크지엄저金금

銀은 玆玆 琉璃 珠 璣 珊 瑚 호 琥 호 琥 호 琥珀 庫

고 佐 佐 吏 吏 리 리 민 민 아 아 안 안 하 하 마 마 象 象 馬 馬 신 신

車 車 거 거 乘 乘 승 승 과 과 牛 牛 부 부 우 우 羊 羊 이 이 數 數 수 수 업 업 거 거

은 은 나 나 과 과 하 하 이 이 또 또 甚 甚 심 심 히 히 商 商 상 상 估 估 고 고 와 와

時 時 貧 貧 窮 窮 之 之 遊 遊 諸 諸 聚 聚 落 落 經 經 歷 歷 國 國 邑 邑 矣 矣

遂 遂 到 到 其 其 父 父 之 之 所 所 止 止 之 之 城 城 矣 矣 ○ ○ 窮 窮 矣 矣

此 此 地 地 也 也 矣

父 父 子 子 每 每 念 念 子 子 與 與 子 子 離 離 別 別 矣 矣 五 五 十 十 餘 餘 年 年

矣 矣 而 而 未 未 曾 曾 向 向 人 人 說 說 如 如 此 此 事 事 矣 矣 但 但 自 自

思惟^하心懷悔恨^하自念^하老朽^고多有^하

財物^하金銀珍寶^하倉庫^에盈溢^하無^하

有^하子息^하一旦^에終歿^하財物^을散失^하

時^하無^하所委付^하是以^로殷勤^하每^하

憶^하其子^하復作^하是念^하我若得子^하妻^하

付財物^하坦然快樂^하無復憂慮^하

○^하여^하비^하의^하상^하아^하돌^하승^하범^하호^하디^하아^하돌^하와

남^하向^하향^하하^하야^하이^하관^하훈^하이^하를^하니^하리^하디^하아^하

분^하츙^하훈^하은^하들^하며^하그^하대^하는^하금^하銀^하은^하

財^하物^하을^하만^하하^하두^하어^하金^하銀^하은^하

보비倉창庫고 수에고독호야야
子조息식의인업수니호릿호야
그면財로다物을을호터일호로브맛돌라
업스리로서다호야의란호로브맛돌라
니의향제야호로상각호며또이念
범을호디내호다상각호며또이念
物을을호맛디내호다상각호며또이念
야는와야사름업스라로다터나호

世尊^하爾時窮子^一備貨展轉^하遇到

父舍^하住立門側^하○世尊窮子

조^하 | 備^하용^하 | 貨^하 | 展^하 | 轉^하 | 遇^하 | 到^하 |

○遙見其父^一踞師子床^하寶

儿承足^하諸婆羅門^과刹利^와居士

皆恭敬圍繞_ㄷ以真珠瓔珞。價直
千萬_ㄹ莊嚴其身_ㄷ吏民僮僕_의手執
曰拂_ㄷ侍立左右_ㄷ覆以寶帳_ㄷ垂_ㄷ
華幡_ㄷ香水灑地_ㄷ散衆名華_ㄷ羅列
寶物_ㄷ出內取與_ㄷ有如是等種種嚴
飾_ㄷ威德_의特尊_ㄹ窮子_一見父_의有
大力勢_ㄷ即懷恐怖_ㄷ悔來至此_ㄷ竊
作是念_ㄷ此_一或是王_나_의或是王等_ㄷ
非我_의傭力_ㄷ得物之處_의不如

往至貧里연肆力有地야衣食易得로

若久住此연或見逼迫야強使我作

로호다리作是念已고疾走而去대○여보

實보几케발바스子즈床상애걸간자

門문과刹할리와居거士스왜와

璣영珞락이갑시千천萬만스니로

右우僕복이소내白백拂플자바左좌帳

香향고여러가자잇빛난창편드리우

곳비하며寶보物물아를버리고한일흥난

리비가가며주어라트고내종

藏	○ <small>이</small> 今有所付 <small>다</small>	○ <small>로</small> 我常思念此子 <small>다</small>	○ <small>고</small> 時富長者於師子座見子 <small>고</small> 便識	○ <small>하</small> 心大歡喜 <small>야</small> 即作是念 <small>다</small> 我財物庫	○ <small>이</small> 아곳나를브고 <small>스</small> 별리드리간대	○ <small>에</small> 이오래저류흔면사혹다와도몰보	○ <small>어</small> 솔해가면힘필자히이겨웃밤수	○ <small>어</small> 돌쳐히아니로소니艱간難난흔	○ <small>스</small> 기이念대아을호되이시혹이왕	○ <small>두</small> 리의큰力辱勢아세이슈몰뉘으처그	○ <small>특</small> 별로별히專존커늘窮궁子 <small>고</small> 스아	○ <small>종</small> 으로속스기짜며威위德덕이持
---	--	--	---	---	---	-----------------------------------	----------------------------------	----------------------------------	----------------------------------	------------------------------------	--	----------------------------------

無由見之니라而忽自來니甚適我願로이

我雖年朽나猶故貪惜라即遣傍

人야急追將還야○그長양者자○면

師스子스不애產좌와애셔아돌보고문득

아라스스스애그장갓커끈이念념을

호디내財지物물庫고藏장이제

맛돌디잇도다내쌍테이아드를思

스念념호디불주리업다니문득개

오니내願원애흥심하맛도다내비

록나히늘그나손지네기티貪탐호

야앗가히노라코즉재겨택차롬보

려오라호야늘
爾時使者疾走往捉대窮子驚愕

稱怨大喚호我不相犯이 어何爲見

捉고使者이執之逾急호強牽將還

于時窮子이 어自念호無罪而被囚

執호此이必定死호轉更惶怖

悶絕躡地호○리○다○자○빈○대○窮

공자 장을 놀라 호 원 호 범 호 아

者 호 자 호 보 호 다 호 모 호 보 호 는 호 고 호 커 호 는 호 사 호 는

이 호 도 호 라 호 오 호 다 호 죄 호 입 호 시 호 가 호 도 호 아 호 자

주보 호 리 호 다 호 야 호 다 호 욱 호 다 호 개 호 두 호 려 호 안 호 히

해수거거늘

○父의 遙見之고而語

使言_다不須此人_이勿強將來_고以冷

水_로灑面_야令得醒悟_고莫復與語_라

니_○ 날아바디머구타셔보고使_스者_자非_아디려

이_○ 닳오디구타셔보고使_스者_자非_아디려

所以者何_노어父_의知其子_는志意下

劣_고自知豪貴_야爲子所難_야審知是

子_다而以方便_로不語他人云是我子

고使者_로語之_다我今放汝_라隨意所

趣

호호대노라

窮子

歡喜

호호得未曾有

從地而起

호호往至貧里以求衣食

니

○ 호호 가와사오나오비제알오저는

호호 貴 가와사오나오비제알오저는

호호 賤 가와사오나오비제알오저는

호호 貧 가와사오나오비제알오저는

호호 富 가와사오나오비제알오저는

호호 貴 가와사오나오비제알오저는

호호 賤 가와사오나오비제알오저는

호호 貧 가와사오나오비제알오저는

호호 富 가와사오나오비제알오저는

호호 貴 가와사오나오비제알오저는

호호 賤 가와사오나오비제알오저는

爾時長者

將欲誘引其子

호호 而設

方便하密遣二人。形色이憔悴고無

威德者디汝호可詣彼하徐語窮子디

此有作處나倍與汝直호窮子이

若許디將來야使作고若言欲何所

作고便可語之디雇汝除糞나我

等二人도亦共汝作호時二使人

即求窮子야既已得之야具陳上事

○그長양者자方방便변陳진上상事사

威라 위德 덕 업 스 닐 보 내 요 디 네 들 오 가

기라니버든글로모매무티고을흔소
 로송츠논그릇잡고양조애저품두어모
 드일흔는사중드러닐오디너희브즈러
 니지서게으르디말라하야지방便변으
 로아드리게시○後復告言디호咄男子아
 汝나常此作고勿復餘去라當加汝價나호리
 諸有所復엇盆器米麵鹽醋之屬을莫自疑
 難라亦有老弊使人나호復者든어相給나호리
 好自安意라我如汝父나호勿復憂慮라○後
 에또닐오디의男남子子조아네상네이로
 깃고나외년뒤가디말라반드기네갑슬
 더우리니여러가짓來구호맷盆분고
 米미麵면鹽염醋醋조屬속은네疑의心심

하야 어려이 너기디 말라 쓰늘근늘근 브
리던 사르미 잇는 니未 구하거든서 르주
라니도히네브들便 변안히너기
라내네아비근호니나외분별말라

所以者何오我年은老大고而汝는少壯니

汝一常作時에無有欺怠瞋恨惡言야都不

見汝의有此諸惡이如餘作人니自今已

後엔如所生子라호리即時長者一更與作字

야名之爲兒니○는저머杜장하니네상네

지슬제소기며게으리며怒노하며惡원
뺨탄엇말업서너의이여러가지惡악이

슈미녀나문짓는사롬곤호몰다몬보노
나오날브터護후엔나흔아들기타호리

라 고 즉 재長者자 다 시 일 ○爾時窮
흠 지 어 일 후 들 아 히 라 하 니 ○

子 一 雖 欣 此 遇 猶 故 自 謂 客 作 賤 人
이 로 라 하 니 ○

由 是 之 故 於 二 十 年 中 常 令 除 糞
하 니 ○

○ 그 蠅 窮 苦 子 一 비 록 이 맞 나 문 깃 그
나 스 지 네 기 티 소 는 로 짓 는 賤 천 人 안

이 로 라 제 너 길 시 이 전 十 二 시 十
십 年 年 中 等 에 상 네 송 十 二 十 二

過 是 已 後 心 相 體 信 入 出 無 難 然 其

所 止 猶 在 本 處
하 니 ○ 아 디 난 後 후 에 體 테 信

신 하 야 들 며 나 미 어 려 움 업 스 나 그
러 나 잇 는 된 스 지 믿 고 대 잇 더 니

世 尊 於 爾 時 長 者 一 有 疾 自 知 將 死 不 久

어 語窮子言曰我今多有金銀珍寶어倉庫
에 盈溢하其中多少와 所應取與를 汝悉知

之하我心이 如是하當體此意라하○世世尊

의長당者자 | 病병 하야장太주구미오
라디몬은돌제아라窮궁子子조드려닐오
어내이제金銀은珍진寶보보론만히두
어倉창庫고어났다니그中중등에하며저
금과가지며줄거슬네다알라내무스
미이근호니반드기이쁘들體체라

所以者何오 今我與汝 | 便為不異하宜加

用心하無令漏失라하○와엇테어뇨이체내너

드외엇나니더무스 ○爾時窮子 | 即受

敎勅_하야_하領_하知衆物金銀珍寶_와及諸庫藏_디

而無希取一餐之意_고然其所止_一故在本

處_하暗下劣之心_을亦未能捨_하디 ○그_一窮

一 즉 재敎교勅_트受_슈는야 한것_金銀
은 珍_진寶_보와여러_庫고藏_장을領_령하

야 아로디_하밥도求_구야가_가뜨_디업
고 그러나잇_는던그저_저민고_대이_시며_는

가 온사오나온_스물_또
能_능히_비리_디몬_디니 ○復經少時_야

父_一知子意_一漸以通泰_야成就大志_하自

鄙先心_하臨_하欲終時_하而命其子_하并會

親族_과國王_과大臣_과刹刹_와居士_야皆悉

已集늘거即自宣言디호諸君이當知라此一是

我子라我之所生니於某城中에捨吾逃走

於하於하蟬辛苦一五十餘年니其本字上某

我名은某甲니로昔在本城하懷憂推覓

忽於此間애遇會得之호此一實我子

我一實其父니로今我所有一切財物이

皆是子有예先所出內이是子所知라야나라

○또저고맛時시節절디내야아히아드
리브디漸점漸점通통泰태하야크브

들일위아릿무스물제더러이너기는들
알오하마주클젤디러아드를命명하며

而作是念	子	던	저	나	甲	本	뷔	성	알	거	리	아
是念	一	거	物	推	本	本	성	中	라	를	와	소
念	聞	시	제	취	本	本	中	등	이	즉	과	과
我	父	려	아	尋	本	本	에	내	내	재	國	國
本	此	미	비	심	本	本	날	아	제	土	土	土
無	言	이	로	하	本	本	보	드	퍼	소	王	王
心	高	아	니	야	本	本	고	리	닐	와	과	과
有	即	아	이	언	本	本	1	고	오	아	大	大
所	大	아	제	다	本	本	수	處	디	오	大	大
希	歡	아	내	내	本	本	나	도	請	로	大	大
求	喜	○	뒀	아	本	本	문	亡	저	모	大	大
니	未	世	논	드	本	本	하	망	君	화	大	大
라	得	專	一	리	本	本	려	하	이	다	大	大
今	未	是	日	오	本	本	니	야	반	하	大	大
此	會	時	切	내	本	本	그	드	드	마	大	大
	有	窮	財	實	本	本	本	라	城	몬	大	大
	야		내	실	本	本				利	大	大

寶藏의自然而至

하느니라

○世尊尊존하시어 비

이 말 듣고 즉 재기장기거未의曹중有유
를得득하야이念념을호되本本來來리
求구할口口음업다나오늘이寶寶藏藏
장이自自然然히니를어다하느니라

世尊

하大富長者

는 則是如來

고我等은皆

似佛子

하스如來

常說我等為子

라하시

○世尊尊존하구장가스면長長者者자는
이如如來來리시고우린다佛佛子子
큰스오나如如來來리상상네우릴대
리사디아드리라하느니라

世尊

하我等

이 以三苦故

로 於生死中受

諸熱惱迷惑無知樂著小法

다 ○世

尊 존 하우 리 삼 불 고 人 전 대 로 생 싱 死
中 둥 에 여 리 熱 설 惱 노 로 受 슈 호 야 遷
미 威 호 호 야 아 롬 업 서 저 ○ 今 日 世 尊 이
근 法 법 을 즐 겨 著 닥 다 니 ○ 今 日 世 尊 이
今 我 等 로 思 惟 蠲 除 諸 法 戲 論 之 真 實 我
等 이 於 中 에 勤 加 精 進 야 得 至 涅 槃 야 一 日
之 價 既 得 此 已 고 心 大 歡 喜 야 自 以 爲 足
야 便 自 謂 言 디 호 於 佛 法 中 에 勤 精 進 故 로 所
得 이 弘 多 다 라 호 然 世 尊 이 先 知 我 等 의 心 着
弊 欲 야 樂 於 小 法 호 乃 便 見 縱 捨 惟 不 爲 分
別 汝 等 이 當 有 如 來 人 知 見 寶 藏 之 分 也

고 시 ○ 오느세 세尊 존이 우리로諸 저法 법

에 정進 신하야 시러淨淨樂樂반애니르러精

了了法法은하마이를得得고오스매기장가

中中하에브즈러니精精進進하늘하이得得하

미하라하다니그러나世世尊尊이본저

우法法의에즐기느니欲欲애著著하야小

知知디見見견寶寶보藏藏장分分을되느니라야

慧慧늘어시我我等의從佛佛와得涅槃業業하一日之日之

價價로以為大得得고於此大乘에無有志求求하

○世尊은 이方便 便변力력으로 來來리 智智디 慧慧혜 二二 力力이 시늘 女女부

터 得得즈와 涅涅槃 槃槃반 得得즈야 大대 乘乘승 에 브데

未未스며 ○我等이 又又 因因 如如來來 智智慧慧야

為為諸諸 菩菩薩薩야 開開示示 演演說說 而而自自於於此此 無無有有

志志願願 所以以者者 何何 佛佛知知我我等等의의 心心樂樂

小小法法 以以方方便便力力로로 隨隨我我等等說說 而而我等

이不知知 眞眞是是佛佛子子 ○우리또 如如來來未未

인야 諸諸저 善善보 薩薩알 爲爲 위위 願願야 二二 因因

니 未未스며 智智디 慧慧혜 二二 力力이 시늘 女女부 得得즈와 涅涅槃 槃槃반 得得즈야 大대 乘乘승 에 브데 未未스며 ○我等이 又又 因因 如如來來 智智慧慧야 為為諸諸 菩菩薩薩야 開開示示 演演說說 而而自自於於此此 無無有有 志志願願 所以以者者 何何 佛佛知知我我等等의의 心心樂樂 小小法法 以以方方便便力力로로 隨隨我我等等說說 而而我等 이不知知 眞眞是是佛佛子子 ○우리또 如如來來未未

우릴 조차닐 어시느니라 우리 眞 眞 實 實 心
이 佛 佛 子 子 山 山 洞 洞 아 디 문 文 다 니

今我等이 方知世尊이 於佛智慧에 無所悵

惜호니 所以者何호니 我等이 昔來에 眞是佛

子호 而但樂小法호 若我等이 有樂大之

心호 佛則爲我說大乘法호 〇 오

사 우리 世 尊 尊 이 부 特 智 智 다 慧 慧 에 實
공 業 스 신 들 처 실 아 습 노 니 었 데 어 노 우

리 네 로 오 매 眞 眞 實 實 이 佛 佛 子 子 로
덕 오 직 저 근 法 法 法 法 다 니 호 다 가 우 리

큰 法 法 法 法 法 法 法 法 두 던 眞 眞 眞 眞 眞 眞 眞 眞
호 사 天 天 乘 乘 乘 乘 乘 乘 乘 乘 다

於此經中 唯說一乘고 而昔於菩薩前

○이毀些聲聞의樂小法者더니然佛實以

大乘의教化호시노○이經中중등에오지

善보薩알알피聲성聞문의小소法법법법즐

기는닐구짓더시니그런의부니實실로

本無心有所希求니○是故我等이說호스

然而至야如佛子所應得者를皆已得之다

○이然시우리솔오디고○이法王大寶自

實보自然연히니르러佛불子子不

爾時摩訶迦葉이欲重宣此義야而說偈言

○그 佛摩訶訶하하하가 葉섭이이브
오디 ○ 들 다 시 퍼려하야 偈 게를슬 오디

我等이 今日에 聞佛音教하 습 歡喜踊躍야

得未曾有과 하 ○ 우리 오 놀 부 텃 고 르 치 사
미 曾 중 有 유 를 佛說聲聞이 當得作佛

得二과 하 다 ○ 佛說聲聞이 當得作佛

시니 無上寶聚를 不求自得과 하 ○ 부 데

샤 디 聲 성 聞 문 이 반 드 기 시 러 부 데 드 외
리 라 하 시 니 유 업 스 寶 보 聚 추 를 求 구 디

아 니 하 야 제 ○ 譬如童子 幼稚無識야
得 득 과 하 이 다 ○ 譬如童子 幼稚無識야

捨父逃逝야 遠到他土야 周流諸國이 五十

餘年늘 이어 其父 憂念야 四方推求하 디

가 졸비전면아^하져머^어룸업서아비번
리고邊도亡망^하야가다르나라해머리
가여러나라해두루드노미위나문히어
늘그아비시름^하야念념^하야四스方방
애推취尋심^하니○求之既疲^야頻止一城
야求구^하디니

야造立舍宅^고五欲自娛^니其家一巨富

야多諸金銀琉璃瑪瑙真珠琉璃象馬牛羊

輦輿車乘^야田業僮僕^과人民^이衆多^야出

入息利一乃遍他國^야商估賈人^이無處不

有^야千萬億衆^이圍繞恭敬^야常爲王者之

所愛念^야群臣豪族^이皆共宗重^야以諸

緣故로 往來者 一 衆야豪富 一 如是야有大

力勢호而年 이 朽邁야蓋憂念子야夙夜

惟念호死時將至 癡子 一 捨我디五十餘

年 이 庫藏諸物 을 當如之何호未구及

마치고 바흐城성 에 머그러 짐짓고五오欲

욕으로 제즐기 더니 그 지비고 장가 스며

러 여러 값짓金금銀은 珠玳瑪瑪 마 羊

양輦련輿여車기乘승이 하며 田田業業

僮동僕복과人인民민이 만호며 내며 드
리며 부르며 리다 른 나 라 해 고 득 호 며
商상估고賣고人인 아 니 잇는 사히 업
스며 천萬만億억衆중이 圃圃統統 恭
공敬敬하야 샹세오 왕의 드 사 念念 남 호 미

夫의 群은 臣인 豪호 族족이 다 무로 사
 가 重重히 더 더니 여러 緣緣 전대로 가
 며 온 사리 만호야 豪호 富부 이 큰호
 야 큰호 勢세 이 소 더나 히늘 거 더 옥야
 드 룬시름호야 念념호야 風속야 애오
 직 念념호되 주글 時時 절이 장태니를
 어늘어 린아 드 리날 버련디 쉬나 문히
 庫고 藏藏 앓물물 돈호반드 기엇테려
 더니 ○爾時窮子 求索衣食 從邑至
 邑 從國至國 或有所得 或無所得
 飢餓羸瘦 體生瘡癬 漸次經歷 到父
 住城 傭賃展轉 遂至父舍 ○ 窮子
 上 吳 來 구호야 구을호 從從 호야 구을
 히가 더나 라호 從從 호야 나해가 시호

去在在二

得^하득^하이^하이^하시^하며^하시^하호^하를^하득^하이^하업^하서^하주^하려^하여^하위^하여^하모^하매^하瘡^하창^하을^하患^하선^하어^하나^하漸^하점^하漸^하점^하次^하太^하甚^하甚^하되^하로^하디^하나^하아^하비^하住^하두^하는^하城^하성^하에^하다^하드^하라^하備^하용^하債^하임^하○爾^하時^하○
○^하어^하오^하를^하○^하며^하을^하마^하아^하비^하지^하브^하카^하니^하○爾^하時^하

長者 於其門內 施大寶帳 處師子座

○眷屬 圍繞 諸人 侍衛 或有計策

金銀寶物 出內財產 注記券疏 ○

그^하幽^하長^하當^하者^하자^하其^하門^하문^하안^하해^하큰^하寶^하보^하帳^하
當^하디^하코^하師^하스^하子^하스^하產^하좌^하애^하안^하자^하眷^하권^하屬^하속^하

이^하圍^하위^하繞^하쇼^하호^하며^하한^하사^하큰^하侍^하衛^하위^하호^하
야^하시^하호^하金^하금^하銀^하은^하寶^하보^하物^하물^하해^하여^하眷^하량^하내^하

며^하드^하려^하券^하권^하疏^하소^하애^하○窮^하子^하見^하父^하의^하豪^하
注^하스^하주^하해^하야^하스^하디^하니^하

貴尊嚴 是國王 若國王等 驚怖

自怪야何故호至此어○窮子子不○의豪호貴귀利利尊尊 존

嚴엄호물보고너교되이國國王왕이어

나國國王왕等등이로다야놀라두려

世荒荒唐唐히너귀엇던○覆복自自念念言言다

我若我久久住住見見逼逼迫迫強強驅驅使使作作思思

惟是惟已已馳馳走走而而去去借借問問貧貧里里欲欲往往傭傭

作作○드위위허허제제念念념념야닐오되내

물보아곳모라짓게호리로다어리스랑

遙遙見見其其子子嘿嘿而而識識之之即即勅勅使使者者

法華經卷下

追捉將來하라窮子하驚喚하迷悶躡地하

是人이執我나必當見殺소何用衣食하

使我至此이○長者者坐이使我者

勅하아라하○長者者坐이使我者

○長者者坐이使我者

○長者者坐이使我者

○長者者坐이使我者

○長者者坐이使我者

○長者者坐이使我者

성에 이아 돌일코 두루 든 너 구 흘 디 리
 이 에 오 니 를 잇 내 뵈 는 집 과 차 르 물 다 하
 마 댘 더 뿌 를 기 장 케 하 노 라 하 대 아 드 리
 빛 꺾 간 난 온 순 념 하 야 브 디 사 오 남 다
 가 량 이 제 아 비 게 보 비 와 또 집 과 일 일 체
 천 량 기 장 언 고 기 장 지 거 마 최 중 유
 를 득 득
 하 니 ○ 佛亦如是 知我 藥小 未
 曾說言汝等 作佛 而說我等 得諸
 無漏 成就 小乘 聲聞 弟子
 부 터 도 이 큰 하 샤 나 의 소 쇼 즐 교 몰 아 리
 샤 너 희 부 터 드 외 리 라 작 과 도 니 르 디 아
 니 하 시 고 우 리 뵈 루 업 수 를 득 득 하 야 소
 소 乘 승 을 일 운 聲 성 聞 문 弟 디 子 자 라
 니 이 다 시 다 ○ 佛 勅 我 等 說 最 上 道 脩

習此者一當得成佛하라이라하라我承佛教하라

와와為大菩薩야以諸因緣과種種譬喻와君

不言辭로說無上道4호諸佛子等이從我聞

法고日夜애思惟야精勤脩習늘是時諸

佛이即授其記다汝於來世에當得辭佛

이러함一切諸佛나祕藏之法을但為菩薩사

演其實事고而不為我사說斯真要다

如彼窮子一得近其父야雖知諸物4호心不

希取야我等이雖說佛法寶藏나自無忘

顔이호亦復如是다타이 ○ 부테우릴도勅탁하사

디이롤다닷가니기야니반디기시러부터

샤물받조와대善보薩살위하야

리가짓인緣원과種종종종辟비喻유

니와諸저佛불子조들히샤상도從종하야法

법든고月일夜야애스랑하야精정히브

재記기를授슈하샤디네오는누예반드

佛불사秘비密밀하藏장앗法법을펴오직

고우리為위하샤이眞진要요를니러디

구하갓가와지디아니트하야우리비록佛求

불법법寶보藏장을 나리나저호 ○我等
뜻을願원업수미쓰이곤다이타호 ○我等

이內滅고自謂為足야唯了此事고更無餘

事하야我等이若聞淨佛國土와教化衆生

호면都無欣樂니所以者何호一切諸法

이皆悉空寂야無生無滅며無大無小며無

漏無為야如思惟고不生喜樂이다 ○

이우리안해滅멸코제足즈호라너겨오직
이이틀알오나외야나문얼업다호아우

리호다가부텃國국土토조게흙과衆중
生싱敎교化화호물든조오면즐교미다

업다니엇데어호야生싱업스며滅멸업스
다뵈여고오호야生싱업스며滅멸업스

며大대업스며小소업스며漏루업스며
흐옴업다흐야이괴티스랑코깃거즐교

나내이다○我等이長夜에於佛智慧에

無貪無著야無復志願고而自於法에謂是

究竟다이라○우리고바미부텃칩디慧혜

야○我等이외야○我等이외야

長夜에脩習空法야得脫三界苦惱之患야

信最後身者餘涅槃야佛所教化에得道

不虛야라則為已得報佛之想야○우리

미空공法법을닷가니겨삼界界계苦고
惱노스시르를시러바사最최後후身신

나문 및 잇는 涅槃 樂반에 伴류호야 부
교 化 化에 道도 得득호미 虛히 티아니
호니 라호야 부 德은 惠 漸 進 스오문
호마 得득호미 드외와 라호다 하이다

我等 雖為 諸佛子等 說 菩薩法 以求

佛道 而於是法 求 無 顛 樂 導師

見捨 觀我心故 初不勸進 說有實利

如富長者 知子志劣 以方便力

柔伏其心 然後乃付一切財物 佛亦

如是 現希有事 知樂小者 以方便力

調伏其心 乃教大智 諸

佛불어子스돈호爲위호야菩보薩살法법
 을닐어佛불道도求구케호되이法법에
 개리願원호양풀구미업술시集도師스
 |브리샤내미스물보시논전太로처셔
 의勸 권호야나소샤實실호치리잇다니
 리디아니호하시더니가스면長당者자
 아드리브디사오나오몬야라方方便便
 力력으로그스물부드럽게긋블인後
 후어와一일切切財財物物을맛디듯호
 야부터도이큰호샤希희有有호이롤나
 토샤저근法법즐길사르몬아르샤方방
 便便호력으로그스물질드려긋블이
 시공사큰智지니○我等이今日에得未曾
 有호非先所望을而今에自得호如彼窮
 子一得無量寶이다世尊하我今에得道得

果_하於無漏法_에得_하淸淨眼_하我等_이長夜

에持_하佛淨戒_를始_하於今日_에得_하其果報_하

法王法中_에久備_하梵行_하今得_하無漏無上

大果_하我等_이今者_에真是_하聲聞_라以佛道

聲_로令一切聞_며我等_이今者_에真阿羅

漢_라於諸世間天人魔梵_에普_하於其中_에應

受_하供養_하○_유우리_가오_나래_미曾_보았_다有

미아_닌거_슬오_늘得_드호_니다_窮공_子

尊_하존_하나_이제_도도_得득_하며_果과_得득_하
하_야漏_루업_스는_法법_에淸_청淨_정眼_안을

得^득득^득호니다우리長^장당^당夜^야야애부^부뒷^뒷조^조호^호戒^戒
 戒^계를^를디^디니^니다^다가^가처^처심^심오^오늘^늘애^애과^과과^과과^과報^보보^보
 行^행行^행得^득득^득호^호며^며法^법法^법法^법王^왕왕^왕法^법法^법中^중중^중등^등에^에梵^범범^범
 業^업스^스큰^큰果^과과^과를^를得^득득^득호^호나^나우^우리^리오^오늘^늘애^애사^사
 眞^眞眞^眞實^실實^실인^인이^이聲^성성^성聞^문문^문이^이라^라佛^불불^불道^도도^도
 八^八소^소리^리로^로一^일일^일切^적체^체들^들게^게호^호며^며우^우리^리오^오늘^늘
 애^애사^사眞^眞眞^眞實^실實^실인^인아^아羅^라羅^라漢^한한^한이^이라^라여^여
 러^러世^세世^세間^간간^간天^천天^천人^인인^인魔^마魔^마法^법法^법에^에너^너비^비
 그^그中^중중^중등^등에^에供^공공^공養^양양^양바^바도^도미^미맛^맛당^당호^호리^리로^로
 다^다소^소히^히 ○世^세尊^존尊^존人^인大^대恩^은은^은以^이希^희希^희有^유事^사로^로憐^려憐^려愍^민
 教化^{교화}作^작利^리益^익我^{我等}等^등니^니無^무量^량量^량德^덕劫^劫에^에誰^誰能^能報^보
 者^자도^도手^수足^족足^족供^공給^급호^호며^며頭^두頭^두頂^정頂^정禮^례敬^경와^와一^일切^적供^공
 養^양로^로皆^皆不^不能^能報^보며^며若^若以^이頂^정戴^대호^호며^며兩^양兩^양肩^견에^에荷^하

負와於恒沙劫에盡心恭敬오又美

饋과無量寶具와及諸卧具와種種湯藥과

牛頭栴檀과及諸珍寶로以起塔廟고寶

衣를布地야如斯等事로以用供養於恒沙

劫와亦不能報로○世世尊은希有은思

일로어엇비니기사教교化화하사우릴

刹리能능히갑스오려고손발로供공給급

와恭敬敬경하스와一일切체供공養양

은로다能능히갑스다물하리며하다가
등바기예하스오력두엇게에대스야
홍沙사劫劫에다승구장恭敬敬경하스

오며 또 다른 차반과 그 저업은 보비옷과
 또 여러 화와具구와種종종탕藥약
 과牛우頭두栴전檀단과 또 여러 보비로
 塔탑 廟묘 세습고보뵈오손 짜해 퍼이러
 뜻은 일로 배恒항 沙사 劫劫을 供공 養양
 하스 와도 또 능공히 瞋瞋 妬妬로 소
 다 ○ 諸佛의 希有 無量 無邊 不可思議
 大神通力이 無漏 無為 諸法之王이 사
 能為 下劣 忍于 斯事 取相 凡夫 隨宜
 而說 ○ 諸佛불이 希有 有유 가 無
 量량 無無 무 邊邊 不불 可可 가 思思
 議議 의 대 神神 通通 동 力력 이 사 미 漏漏 루
 能能 능 히 사 오 나 오 늘 위 하 사 이 어 른
 大대 只只 作作 相相 取取 取取 凡凡 夫夫 부 에 맛 당

은 조 하나 ○ 諸佛이 於法에 得最自在

知諸衆生의 種種欲樂와 及其志力 隨所

堪任 以無量喻로 而為說法 隨諸衆

生의 宿世善根 又知成熟과 未成熟者

種種善量 分別知已 於一乘道 隨

心說三 ○ 諸佛은 法에 自

衆生은 生의 種종 種종 敬욕 樂요 와 또 辨
히를 아리샤이 기을 들 조대샤 그 지 업 스

辭비 喻유 로 爲 위 하야 說 설 法 법 은 시 며
諸 衆 生 生 의 아 리 는 舊 옛 善 선 根 근 은

조대샤 이 러 니 곱 과 이 러 니 디 문 은 날
아 리 작 種 종 種 종 헤 아 리 샤 글 히 야 아 리

사 일 乘 道 到 矣 當 爾 時
사 세 喜 心 起 已 而 說 此 法
也 佛 告 諸 比丘 汝 等 當 知 此
法 甚 難 得 也 若 有 人 能 受
持 此 法 者 我 當 為 之 說 此
法 也 佛 說 已 竟 諸 比丘 皆
歡 喜 奉 持 佛 告 諸 比丘 汝
等 當 知 此 法 甚 難 得 也 若
有 人 能 受 持 此 法 者 我 當
為 之 說 此 法 也 佛 說 已 竟
諸 比丘 皆 歡 喜 奉 持

妙法蓮華經卷第二

卷之二

慈順王大妃殿下壽萬歲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

齊安大君兩位

昭惠公主兩位 玉惠公主 玉麟公主 溫宮李氏 安賓南氏 敬賓朴氏 貴人洪氏 尚宮洪氏

淑容甸氏 淑容金氏 淑媛洪氏

尚宮安氏

尚宮尹氏 李氏今西音

尚宮權氏 慎氏 李氏

尚宮張氏 尚宮朴氏

尚宮姜氏

尚宮何氏 田氏孝目

千伊 奇氏終今 金氏萬非

具氏命福 金氏仲月 韓氏難貞 金氏加知 隱今 今春 寶賢

大根非 恩郎今 椿非 尚宮李氏 顧一 淑惠翁主兩位

刺城君兩位 靈山君兩位 夫人楊氏 夫人尹氏 夫人河氏 於里今

窪心 孝德 朴氏繼玉 香伊 閔代 銀代 尚宮成氏 朴氏恩郎今

者斤非 存德 王守 吾非 內隱加伊 閔非 壬代 又佛今 莫登

貴今 莫非 惠順翁主兩位 惠淨翁主 雷王 福城君兩位
海安君兩位 錦原君昌壽氏 李氏定遷 李氏彝遠 林肉貴守
李氏忠守 李氏呂水 姜氏長令 夫人具氏 迨于公主兩位
姜氏兩位 四非 朴氏載貞 田氏 趙氏 朱氏一餘 孫氏僧格
道信 性精 精安 香雲 了心 妙之 德謙 善忠 妙行
信會 守賢 德迨 義京 道隱 石史 惠堅 家迨 良里
元今 八月 山今 萬德 寸同 書寫趙李副 金壽全
金靈遠 趙崇禮 刻手金希 趙石江 李元亨 金億守
金中石 洪阿之 李環 丁希孫 刘壬亨 校正金演
木手盧億千 飯監金瑞珍 怡近 志贊衛李言己未
美適兩主 文碩兩主 林賢直 金莫同兩主 金孝同
內隱今 洪千 慶王 金同

大功 德主 尚宮 金氏

弘治十三年庚申九月 日刊 同事林厚



